Weekly
공감
2009 09.30
No.31 (통권 132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민생 속으로
살짝이 옵서예~
기획특집 서민·중산층 촘촘히 챙기는 민생정책
美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마지막 레이스 펼치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정부는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미소(美少)금융'으로 이름 지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2조원대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들이 5백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탤런트 이정길 씨는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따뜻한 시장경제로 추석에 온기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안요인들에도 불구하고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 생산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등 회복 징후를 점차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같은 온기가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술 및 경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의 성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 급락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대폭 감소했고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더라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인해 고용 부진과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이 서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올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복지재정을 확충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공교육 강화 등으로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했으며, 보육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재정을 통해 서민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소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받아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따뜻한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에게는 재기를 지원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기본철학이다. 이는 서민들의 창업을 북돋움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시장친화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게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013년쯤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곧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안정 속에 지속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해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밝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 G

기획특집

서민이 따뜻한 세상… 한가위만 같아라

휘영청 밝은 만월(滿月)이 온누리를 비추는 추석입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에 추석 달만큼이나 밝은 희망과 행복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중도실용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44

40

발행일 2009.9.3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총 선수 4명… 연봉 390만원 그래도 점프대 서면 행복합니다"

"지역발전에 126조4천억 투입 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 〈Weekly 공감〉 29호(9월 16일자) '스포츠-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기사와 관련해 선수들을 격려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까지의 길은 아직도 험하기만 하다. 훈련 경비가 모자라 올해 11개 정도의 해외 월드컵대회에 참가할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함께 점프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이들이 내년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스키점프의 인기를 몰 수 있을지, 영화 〈국가대표〉 속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_대표물고기

"지난 주말에 영화 '국가대표'를 보고 왔는데 실제로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파이팅!!"_국민권익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하이원에서 소속팀이 없던 강칠구 선수 등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입니다!"_두루누리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다투던 신호등 없는 교차로,
표지만 보면 순서대로 지날 수 있죠.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농약병, 폐비닐은 반드시 회수합니다.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10킬로그램을 무단 소각하면 28.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폐비닐과 페트병은 악취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 〈Weekly 공감〉 30호(9월 23일자)에 실린 '생활정보-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기사와 관련해 올라온 댓글입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잘 보고 공부하고 갑니다." _세미예

"인터넷일수록 아무 것이나 사면 안 되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_누리

●● 〈Weekly 공감〉 30호 '뉴스 분석-지역발전에 126조4천억 투입' 기사와 관련해 한 독자가 이색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투자 대상은 그 지역 관공서 및 중소기업입니다. 관공서의 경우 축제, 지역사업, 복지 부문 등에 사용하고 중소기업은 대상을 선정해 저금리에 사업자금 및 기술연구비를 대출해주는 형식입니다.
지역민은 자신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역과 중소기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졌으면서도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은 이 펀드를 통해 성장 발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살면 지역도 살고 고용효과도 좋아지겠죠. 관공서도 더욱 질 좋은 축제와 사업을 펼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삶도 윤택해지겠죠. 이런 펀드 괜찮지 않을까요." _권희근

알립니다

'1인 창조기업 브랜드 공모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홍보물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 1인 창조기업의 꿈과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로 1인 창조기업의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독창적으로 표현
공모 분야 캐릭터, 로고, 슬로건, 징글(CM송)
응모 자격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대한민국 전 국민
접수 기간 10월 14일까지. 10월 27일 발표. 11월 3일 시상 예정

시상 내역 부문별로 대상(1편) 3백만원, 우수상(2편) 1백만원, 장려상(3편) 50만원 등 총 2천6백만원의 상금과 상장 수여
상세 문의 아이디어비즈뱅크 홈페이지(www.ideabiz.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02-3787-0432)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29호(9월 16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유비쿼터스 **4** 뚝심 **6** 소니 **8** 시너지 **9** 전망대
세로 **2** 터무니 **3** 굴뚝 **5** 심기일전 **6** 소녀시대 **7** 디지털

당첨자
강오덕(전남 나주시 금계동)
김수화(충북 제천시 청전동)
서용미(인천 남동구 만수동)
손혜진(경기 안산시 사동)
이찬영(대전 유성구 원내동)

가 로

3. 신용이 부족해서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에게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기부금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정부 정책. 앞으로 10년간 2조원대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액대출'의 줄임말.
4.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 "문화재가 박물관에 잘 OO되어 있다."
5.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신중하게 함. "좀 더 OO하십시오."
8.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정부는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OOO,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 '화랑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신라시대 여성 권력자. TV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덕만공주와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죠.

세 로

1. 서울 종로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 1910년쯤에 세워져 일류 개봉극장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1980년대 초에 문을 닫았죠.
2. 투자와 융자.
4.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또는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짓고 있는 집을 'OOOO주택'이라고 하지요.
6. 그대로 풀이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과 '실질적인 쓸모'를 뜻하는 말로, 서민을 향해 다가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이기도 합니다.
7. 영업을 처음 시작함. "식당을 OO하다."

독자 공감

〈Weekly 공감〉은 독자와의 소통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독자 공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 전화번호와 간단한 자기 소개글을 gonggam @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이 만난 첫 독자는 대학 졸업반인 김효진(22) 씨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인 김 씨는 상냥한 목소리와 미소가 매력적이다. 리포트와 논문을 쓰기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다 〈Weekly 공감〉을 알게 됐다는 그는 "매주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사를 읽고 있는데, 유용한 기사는 스크랩을 해둔다"는 열성 독자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이겠죠. 우리나라는 이공계나 상경계열을 제외하고는 학과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요.

예비 취업자로서 생각하는 청년실업 해소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업과 대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일부 학과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Weekly 공감〉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를 꼽는다면.

"'그린 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가 기억에 남아요. 요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기획특집에서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재미있고 알차게 소개해주었어요.

〈Weekly 공감〉에 아쉬운 부분은 없나요.

저도 인터넷으로만 읽었지 책으로 본 적은 없어요. 다른 친구들도 본 적이 없대요. 학교 도서관에서 찾기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Weekly 공감〉을 읽을 수 있어야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도 늘지 않을까요.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의견 또는 아이디어.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

1. '군에 부는 녹색강풍'이 가장 흥미로웠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나도 예전에 충성클럽에서 나오는 봉투에 대해 참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녹색소비를 실천에 옮기는 부대가 있다니 흥미로웠다. 훈련받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바뀐 제도에 잘 적응하는 후배들에게 칭찬을 보내고 싶다.
2.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역의 음식에 대한 자랑거리를 알리는 손수제작물(UCC)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에 수출하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의 음식과 경쟁하려면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
3. 행복도시 세종시를 다뤘으면 한다. 고향이 충남 연기군인데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세종시가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을 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_ 황의범 · 충북 청주시

1. 기획특집-농어촌 살리는 지역 특산품의 힘. 이젠 웬만하면 각 지역이 특색을 살려 특산품을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획특집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 홍보 및 포장지에 대한 꾸준한 디자인 개발 보급을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3. 신종플루 예방법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많이 실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미리미리 예방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_ 장효남 · 전남 진도군

1. '기획특집-지역 특산품의 힘'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안동에도 간고등어가 유명한데, 이렇게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서 나라경제도 살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은 없을 것입니다.
2. 지방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밝은 빛이 비치리라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하는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니 이해하기도 쉽고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늘 새로운 소식과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_ 김현희 · 경북 안동시

독자 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7일(수)까지 gonggam @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서민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더할 나위 없는

연합

衣·食·住·學·樂이 디자인이다

연합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더 클루(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9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더 클루(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지닌 우리의 '총체적 삶'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해 새로운 디자인문화의 '실마리(Clue)'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입고(衣) 먹고(食) 살며(住) 배우고(學) 즐기는(樂)' 5가지 주제전과 '살림(救), 살핌(慮), 어울림(交)'의 프로젝트전은 '우리 것'을 동서양과 장르를 아울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통합한 디자인의 향연이다.

한국 전통 정원인 담양 소쇄원을 주제로 세계 각국 디자이너와 건축가 등이 제안한 휴식공간,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전문학교에서 조각보와 문창살 등을 외국인의 시각과 기법으로 작품화한 모자이크 특별전, 이탈리아 유명 타이포그래퍼 마시모 피티스가 한글과 알파벳, 한글과 한자 등을 조합해 만든 디자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저고리 드로잉 국제 공모전'에서 선발된 작품 등은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가능성을 제시한다(상세 내용은 56~57쪽 기사 참조). G

글 · 이혜련 기자

1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48개국 9백여 디자이너와 기업이 참가해 1천9백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 1천 벌의 한복을 입은 1천 개의 인형으로 꾸민 '옷' 전시장.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국제 질서 주도 중심에 서다

선진·신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됐다. 또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져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DB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9월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선진·신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모이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이 정상들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해 우리나라는 정례화된 G20 정상회의의 첫 개최지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 직후 G20기획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내년 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왔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던 빈민국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세계 중심국가로 확실히 올라섰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계 경제공조체제 구축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비중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고, 성과도 컸다.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체감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 모두 자국의 처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양쪽을 모두 아우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제사회서 한국의 역할 · 위상 더욱 확대될 것

그런 가운데 신흥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중재자로 나서자 양쪽 모두 우호적으로 반겼다. 최빈국에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 중인 한국이야말

로 신흥국과 선진국 양측의 처지를 모두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20 소속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조율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무리 없이 반영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라는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IMF · 세계은행 근본적 개혁해야"

우리나라가 G20의 최대 목표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로 경제가 급락했다가 단시일 내 회복한 뒤 이번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위기에 처한 각국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올해가 경제위기 탈출에 매진하는 해라면 내년에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경험은 신흥국들에게 좋은 선례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위기극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G20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999년 선진 7개국(G7)과 신흥경제국인 한국,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여해 창설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퍼센트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속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처음엔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다가 지난해 11월 정상회의로 성격이 격상됐다. 이후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올해 4월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G20는 처음엔 주로 글로벌 경제 안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놓고 권고안을 채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이끄는 주도권이 기존의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G20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브라질, 영국과 함께 G20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되면서 G20에서의 발언권을 키웠다. 내년엔 대표의장국 역할을 맡게 된 데 이어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한편 9월 24일과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국과 흑자국 간 경제 불균형 해소, 경제위기 주범인 금융사 규제와 감독 강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출구전략 공조, 보호무역주의 타파와 지구온난화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WB)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IMF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투표권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분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IMF처럼 지분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IMF와 다자개발은행들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재원들이 주로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선진국과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새롭게 배분된 특별인출권(SDR)의 일부를 빈곤감축 성장촉진 신탁기금에 넣어 저소득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4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종플루 추석 진료체계 가동 전국 보건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추석을 맞아 고향 가는 발걸음이 다소 가볍게 됐다. 신종플루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 추세는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유행성 질환이다. 기침할 때 입을 가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신종플루를 피하는 기본대책이다.

추석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 확산 추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신종플루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9월 22일 발표한 9월 셋째 주(14~20일) 신종플루 발생 현황을 보면 신종플루 검사 양성 사례는 모두 5천2백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완만한 편이다. 지난 8월 말 이후 신종플루 검사 양성 사례를 보면 하루 평균 △8월 24~30일 1백75건 △8월 31일~9월 6일 2백88건 △9월 7~13일 5백38건 △9월 14~20일 7백45건으로 건수 자체는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65퍼센트 → 87퍼센트 → 38퍼센트로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추세다.

항바이러스제 배정과 투약 현황도 8월 21일부터 9월 20일 사이 모두 6만4백97명분이 투여되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하루 평균 △8월 31일~9월 6일 1천9백61인분 △9월 7~13일 2천93인분 △9월 14~20일 2천1백38인분이 투여되는 등 최근 투약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모든 보건소 매일 진료… 거점약국 추가 지정

한편 신종플루 확진환자 중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61세 남성이 9월 23일 밤 심부전이 악화돼 사망함으로써 9월 25일 현재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11명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10월 2~4일) 중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인구 대이동에 따른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석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백54곳)에서 24시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모든 보건소(2백53곳)가 매일 진료를 실시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 1천3백여 곳도 매일 3곳 중 1곳이 돌아가며 진료를 하게 된다. 거점약국(1천3백31곳)도 추석 때까지 2천 곳 수준까지 추가로 지정하고 당번약국을 정해 연휴기간 중 매일 거점약국을 최소한 6백 곳 이상 운영

추석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길에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할 계획이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일부에서 손 씻기가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사용 등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개인위생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휴 중 신종플루와 각종 전염병 주의" 당부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 대이동과 해외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종플루 이외에도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추석 연휴기간 중 주의할 전염병은 △명절 음식 집단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유행성 눈병 △해외여행 중 감염되는 콜레라, 모기매개 전염병 등이다.

특히 콜레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으나 해외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므로 해수온도가 섭씨 18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해외에서 각종 어패류 등을 생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연휴기간 중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해외여행 후 감염자의 발견과 추적관리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의 하절기 비상연락체계를 추석 연휴기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추석 연휴 중 전국 시도 보건과 비상연락망

기관명	전화번호	비상 휴대전화
서울	02-3707-9137	010-4787-5157
부산	051-888-2854	010-2302-5157
대구	053-803-2993	010-8880-5157
인천	032-440-2742	010-3281-5157
광주	062-613-4370	010-5022-5157
대전	042-600-5212	010-4488-1035
울산	052-229-3562	010-6340-5157
경기	031-249-2424	010-9570-5157
경기 제2청	031-850-2762	010-9433-5157
강원	033-249-2683	017-370-3340
충북	043-220-4561	010-5486-0610
충남	042-251-2956	010-5452-5157
전북	063-280-2432	010-9035-5157
전남	061-286-6043	010-7645-4499
경북	053-950-2427	010-4503-5157
경남	055-211-5165	010-4446-5157
제주	064-710-2937	010-2440-5157

보건복지가족부 Tel **129**
응급의료정보센터 Tel **1339**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종플루 예방 대책

'학생지대사(學生之大事)'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도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1월 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수능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환자 수험생을 위해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이 설치되고 예비소집일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장에 의료진이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신종플루 확산으로 수험생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늘고 있어 이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능 시험장에서의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9월 25일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수능 시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마다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분리시험실을 2개 이상 운영하게 된다. 분리시험실은 확진환자용과 의심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를 최소 1, 2미터 이상 유지키로 했다. 또 시험지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병원시험장은 시도교육청이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각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예비소집일(11월 11일)에는 수험표 배포와 함께 발열검사를 시행한다. 세 차례 발열검사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에도 신종플루 의심증세(급성열성호흡기질환)가 있는 경우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종플루 의심증세는 '7일 이내 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다.

연합

학교에서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수능 시험장에도 대책이 마련된다.

수능 시험장 의심환자 진단 후 대처방안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는 경우(재학생, 졸업생 등)

발열 증세 ➡ 학교 보건교사 1차 판단 ➡ 신종플루 증상 의심되면 지정병원으로 보냄 ➡ 지정병원 의사는 진단 소견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전달(또는 보건교사가 병원 결과 확인) ➡ 보건교사는 해당 학생과 지구교육청에 통보 ➡ 지구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에 통보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받는 경우(검정고시생, 주소 이전 졸업생 등)

발열 증세 ➡ 교육청 보건담당자 1차 판단 ➡ 신종플루 증상 의심되면 지정병원으로 보냄 ➡ 지정병원 의사는 진단 소견을 교육청 보건담당자에게 전달 ➡ 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에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 Tel **02-2100-6367**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이끄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가 서민들을 찾아가도록 예술이 우리에게 용기주도록

“문화로 사회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문화정책의 목표다. 유 장관은 특히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운동인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세계시장의 높은 벽을 넘은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 각종 문화 콘텐츠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풀 죽은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안겨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바로 문화의 이러한 강점을 살려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나눔 운동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1백57가지 문화사업을 모아 수요자 처지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통합 조정해 대표적인 서민 문화정책으로 재정비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더욱 바빠진 유 장관을 만나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역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소외지역 방방곡곡 문화순회 사업’은 국립예술단체가 전남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50개 문예회관을 순회하며 연중 공연을 진행합니다. ‘생활문화 공동체사업’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영화나 연극 제작 단체와 연결해주고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소외계층 사계절 문화나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벽지 주민이나 농·공·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거주자,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 양극화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죠.

일례로 평화어린이발레단의 경우 장애인 아동과 비장애인 아동이 일대일로 결연해 발레를 익히고 공연까지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장애가 있어도 발레를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도 됐고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년 3백65일 다양

한 순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조정해서 한층 밀도 있는 문화서비스가 되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6개 국립공연단체가 각기 진행하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선해 '찾아가는 문화사업'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역별 안배 면에서도 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올해는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과 지방에 있는 소규모의 학교, 복지시설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만 1천6백만여 명의 문화 소외계층과 서민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종합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적으로도 사업들을 총정리해보니 지난 2, 3년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향유 관련 사업이 안정화됐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이 확실하고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으니 부지런히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분위기와 반응은 어떨습니까.

올 한 해에만 3백여 군데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담당자들의 노고를 헤아리고 수혜자들과 함께 문화를 나눌 더 좋은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지방의 읍면 거주자들은 대도시에 나가야 좋은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데 그곳은 물론 산간, 도서지역까지 찾아가 보여주니 무척 좋아합니다.

문화를 통한 감동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늘 누리고 즐기는 사람은 그 감동이 덜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느끼는 감동의 크기는 훨씬 클 수밖에 없지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방문화원, 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민과 내국인이 문화로 소통하고 희망을 나누는 장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문화 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지역순회공연은 문화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에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리 이웃인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윈윈(Win-Win) 전략이 있습니까.

문화시설 운영체계를 지자체 직영 중심에서 민간위탁방식 등으로 전환해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문화시설은 리모델링하는 방식 등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공공성(저렴한 가격)과 개방성(누구나 쉽게 이용)을 강화하고, 각 문화시설별로 운영을 특화하거나 문화시설 간 연계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경제위기 극복의 밑거름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예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문화예술 수요 확충, 안정적인 창작 인프라 마련 등 장기적 예술창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예술 전공자의 경우 매년 1만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정규직 취업률이 10~20퍼센트에 그칩니다.

> **✓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과 복지시설 등에서 1천6백만명의 시민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렸습니다.**
>
> **✓ 소외지역 방방곡곡 문화순회 사업으로 전국 50여 문예회관을 돌며 공연을 진행합니다.**
>
> **✓ 추석 연휴 외롭게 지내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추석맞이 나눔여행'으로 농어촌 체험마을과 서울시티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정책으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의 미술작가 채용, '문학관·도서관의 문학작가 파견 사업'의 문학작가 채용, 소극장 공공 임대 운영 및 문예회관 상주단체 육성, 소외지역 학교 우수 공연예술단체 파견 등이 그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마련되는 '추석맞이 나눔여행'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광사업의 하나로, 추석 연휴에 외롭게 지내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 가정별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은 농어촌 체험마을과 서울시티투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지원을 꾸준히 늘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추석맞이 나눔여행 Tel 02-757-7488 www.nanumtour.or.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www.newplus.go.kr

내 집 마련의 기회!
빠르고 더 확대됩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친환경 그린홈에서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까지

집이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new+ 솔루션

- **NEW + 공급확대**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 **NEW + 청약제도**
  보금자리주택의 20%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 공급
- **NEW + 가격인하**
  용적률 녹지율 조정, 시공과정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15% 내외 인하
- **NEW + 주택유형**
  중소형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 **NEW + 입지조건**
  도심과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집중 공급
- **NEW + 건설기간**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사업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공급
- **NEW + 녹색도시**
  생태순환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홈 공급

사이버체험홍보관(cyber.newplus.go.kr) 9월 30일 OPEN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획특집

휘영청 밝은 만월(滿月)이 온 누리를 비추는 추석입니다.
어느 곳, 누구에게나 밝음이 가득하길 바라는 달의 마음은
서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친(親)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닮아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에 추석 달만큼이나 밝은 희망과 행복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중도실용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나누면 따뜻해지는 한가위 맞으십시오.

일러스트 · 이우정

MB 국정 운영의 핵심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복지예산 비중 역대 최고… 살맛

추석이 다가왔다. 누구나 속 꽉 찬 송편마냥 풍성한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 서민과 중산층 살림에 윤기가 돌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주머니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희망하는 추석명절,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바라는 세상은 바로 1년 열두 달이 추석 같은 풍요로운 나라다.

추석을 앞두고 누군들 마음이 설레지 않으랴.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떡집을 하는 김대희(36) 씨 마음은 요즘 어느 때보다 들뜨고 분주하다. 새벽 4시. 쌀을 씻어 찜통에 안치거나 쌀가루를 시루에 찐다. 오전 7시. 첫 떡이 나온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밤 10, 11시까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떡을 판매하는 김 씨에게 추석명절은 대목이다.

"얼추 반년 장사를 추석에 하는 것 같아요.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맞벌이가 흔해 송편을 사서 먹는 가정이 많다 보니 송편을 찾는 사람들로 떡 만들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대목을 맞아 신이 날 만도 한데 김 씨는 "요즘은 적은 액수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5천원어치 떡을 팔아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4천원에 파는 것과 다름없다"며 "카드 수수료에다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인건비 챙기기도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게다가 사람들의 입맛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수입쌀을 사용하면 금방 떡이 맛이 없다며 발길을 끊는다"고 떡집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경제가 살아난다는데, 우리처럼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신났으면 좋겠어요. 둘러보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다들 살맛 나면 더 좋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력한 서민 지원 '미소금융'

골목골목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신나는 세상, 시장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신명 나는 대한민국. 이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친(親)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전통시장 전용상품권 발행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유아 무상보육과 차상위계층 보육비 지원 확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상 6월 발표) △대학생들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7월 발표)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감세안(8월 발표) △집 없는 설움을 없애

동아DB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9월 1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손녀에게 줄 한복을 고르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기확대(8월 발표) 등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가운데 핵심은 9월 17일 발표된 미소(美少)금융이다.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 금액을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이 정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라며 "우리나라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미소금융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라도 푸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 이 대통령은 다음 날 고향인 경북 포항을 방문해서도 수차례 보금자리주택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미소금융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친서민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월 21일자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서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자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모토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중심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약계층에 31조원 지원… 서민·중소기업에 감세도

이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 챙기기에 나선 것은 최근 경기회복세로 대기업, 중견기업에는 점차 봄바람이 불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서민층에게는 아직도 찬바람 부는 겨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만7천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 8월 28일 발표된 '2009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국 가구의 실질 소득과 소비가 3분기 연속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표방 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40퍼센트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국정지지도의 흐름은 31.1퍼센트(7월 26일)→36.1퍼센트(8월 9일)→39.7퍼센트(8월 16일)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아DB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중 복지 부문 비중은 29.2퍼센트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감세와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31조3천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재정부담 해결이 과제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가 5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와 더불어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낙회 조세기획관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누구는 그렇게 돈을 풀다가 나라 곳간이 비는 게 아니냐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국가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우리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은 바로 이 같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따뜻한 통치"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신용 낮아도 은행 금리 이하로 대출

불법 대부업은 가라 '美少금융'이 온다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행돼온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체계화한 '미소(美少)금융'이 출범한다.
서민 마음에 밝은 햇살이 될 미소금융은 정부 지원의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다.
말 그대로 '적지만 아름다운 금융', 미소금융이 서민 자활을 돕는 금융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다.

#1 서울 동작구 본동에 사는 홍상연(39) 씨. 지난 6월 자신이 가진 전기기술을 살릴 수 있는 전업사를 개업했다. 한때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던 홍 씨는 보건복지가족부, 하나금융지주 등이 공동으로 펼친 희망찾기 캠페인을 통해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대상자로 선정됐다. 홍 씨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금 1천7백만원 덕분에 꿈꾸어 오던 '사장님'이 됐다.

#2 경기 남양주시의 이정희(48) 씨. 지난 8월 한 아파트 상가 안에 탁자 7개가 들어가는 자그마한 국수집을 열었다.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파산한 아픔을 겪은 이 씨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자금을 지원하는 하나희망재단에서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2천만원과 친척들에게 빌린 2천만원을 합쳐 온 가족의 희망이 될 가게를 낼 수 있었다.

#3 강원 속초시에 사는 함남규(50) 씨.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 운영하던 사업체의 문을 닫고 서울에서 속초로 내려온 그는 지난 3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창업지원금 2천만원을 지원받고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함 씨는 지금 아내와 함께 인쇄소를 운영해 월 1백5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

동아DB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은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미소금융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에서 처음 출발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에 시련을 겪은 홍 씨나 이 씨 같은 서민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란 영세계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무담보 대출 사업.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그라민은행 이후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까지 서민을 위한 희망으로 확대 발전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30여 민간단체가 정부 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 자금,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전체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 지원받기가 녹록지 않았다. 앞서 말한 함 씨의 경우도 여러 번 심사 끝에 무려 1백20 대 1의 경쟁을 뚫고 지원 대상이 됐다.

소액서민금융 네트워크화…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게다가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한계로 지적돼왔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한 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안전대책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17일 열린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묶어 전국을 네트워크화하고 향후 10년 동안 2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도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5백만원 안팎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서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대폭 확대'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돼 미소금융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휴면예

정경택 기자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의 도움으로 인쇄소를 차린 함남규 씨(오른쪽)와 직원들.

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벌여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묶어 전국 2백49개 시군구 모든 곳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 한 곳 이상을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3백 개 이상 마이크로 크레디트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휴면예금 출연금 등 민간 기부 중심으로 재원 조성

향후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중추기능을 하게 될 미소금융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 미소금융사업에 앞으로 10년간 조성되는 2조원 이상 기금은 모두 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규모는 과거 10년 간(2000년~올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 규모(1천4백80억원)의 13배 이상이다. 앞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을 포함해 재계에서 약 1조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도 1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는 미소금융재단 산하 미소금융법인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와 일반 창업, 자활단체의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백만~1억원까지 시장금리보다 2, 3퍼센트 낮은 금리로 1~5년간 대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오는 12월부터 1단계로 20~30여 개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한 다음 내년 6월부터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미소금융 사업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대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민의 '자활'을 목표로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상담자에게 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시켜 신용회복 관련 서비스도 받게 해줄 계획이다.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 규모가 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체를 만들어 정부 간섭 없이 민간 자율로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재원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넓은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의 김우규 원권리자보호팀장은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해오던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와 별도로 미소금융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 규모가 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체를 만들어 정부 간섭 없이 민간 자율로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재원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넓은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미소금융재단 이끄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기업 기부로 서민 자활 돕는 민간 운동"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무보수직인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기업인의 사회 공헌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40여 년 전 미국 유학 당시 한 달 방값 80달러를 낼 돈이 없었는데, 은행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백 달러도 안 돼 케냐보다 가난한 나라 취급을 받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김승유(66)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미소금융) 확대와 함께 오는 12월 출범하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그는 어려운 미국 유학생활에서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경험'이 무보수직인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당시 유대인 사회복지단체에서 제 학생증만 보고 5백 달러를 대출해주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마이크로 크레디트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민간 차원에서 금융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미국 사회가 오래 유지됨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수지가 악화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에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은 문턱이 높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 구축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미소금융재단의 탄생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이 몇몇 민간단체들에 의해 수행돼왔지만 전체 사업 규모가 작은 데다 사업자 수도 적고 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요인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의 구성과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중앙재단(소액서민금융재단 확대 개편)과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들로 구성됩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로서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정책 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통합관리 등 총괄기능을 수행합니다.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미소금융재단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국내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성공 모델로 미소금융재단을 자리 잡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정관 변경과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을 유관 기관과 협의하는 등 한 걸음씩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자활 의지는 있으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와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동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대되며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활용함으로써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돈 때문에 학업중단 없게… '학자금 안심대출' 내년 첫 시행

"제 학비는 제가 벌어 갚을게요"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 학자금을 한도 없이 대출받고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의사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는 고3 수험생 김혜미(가명) 양은 의대 등록금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학원 보낼 여유도 없는 가정에서 한 학기에 5백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의대 진학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김 양은 최근 뉴스에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다시 꿈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대에 진학해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학자금

지난 7월 정부가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한 후 서민가정의 등록금 걱정이 크게 줄었다.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면 재학 중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없다. 따라서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준다.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고, 분할 기간도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상당수가 재학 중 매월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상환 기간에 원리금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납부를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6년 6백70명에서 2007년 3천7백26명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3천8백4명으로 급증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엔 연간 200만원 생활비 지원

새 제도는 대학생들이 이처럼 등록금 문제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모에게는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된다.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

조영철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득 인정액 4천8백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도 없애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2백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지원하고 소득 1~7분위에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나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대입수능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1백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백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공교육으로 사교육 이긴다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기회 확대, 방과후 학교 및 교원평가제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가계 고통을 걷어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종일돌봄교실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으로 학부모의 보육 부담이 크게 줄었다.

사교육비 경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여덟 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신정희(가명) 씨는 한동안 고민이 많았다. 자신이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던 탓이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그의 걱정은 자연스레 해결됐다.

신 씨처럼 보육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종일돌봄교실은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은 물론 식사도 제공하는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정부는 서민들의 보육 및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공교육 강화 정책과 경제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는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차가 더욱 벌어지고,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사교육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학자금 대출금리 1~1.5%포인트 인하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퍼센트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최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7.3퍼센트에서 5퍼센트대 후반으로 낮췄다.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연소득 1천8백13만원 이하만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젠 연소득 2천3백84만원 이하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출이자 전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하위 50%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회도 늘어났다. 지난 7월부터 차상위계층 41만 가구뿐 아니라 소득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20만명도 무상보육 혜택을 보고 있다. 종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5계층으로 구분해 보육비를 차등 지급했지만, 7월부터는 3계층으로 축소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결국 총 61만 가구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52만~73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세 이하 영아를 둔 취약계층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대폭 늘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현재 2백32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월 80시간, 연 4백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교부터 병원 데려가기, 간식 챙겨 먹이기 등의 보육활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기본 5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이 1천원밖에 되지 않아 이용에 부담이 없다.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백 퍼센트 이하(월 평균소득 4인 가구 3백91만원 미만)로 완화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이 5천5백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해당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회원이 되면 전화나 인터넷 등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잠재력으로 학생 뽑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정부는 또한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을 성적 위주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체제로 바꾸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기관 5곳을 선정해 입학사정관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사교육 과열을 부추겨온 외고 입학전형의 지필고사는 2010학년도 이후 금지된다. 과학고의 경우 2011년 입시부터 중학교 내신 반영 시 수학과 과학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과학고는 2011년 입시부터 경시대회·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일반전형도 단순화해 입학사정관 전형(7~10월)과 과학창의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10~12월)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직 교사나 외부 인력을 활용해 학교별로 2명 이상 배치한다.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은 KAIST에서 운영하게 된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 등으로 공교육 강화

현재 33개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과교실제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서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 용인시 동백고등학교는 이를 도입해 수학과 영어 과목의 8, 9등급 학생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선진형' 45개교에 학교당 15억원을 지원하고 수학, 과학, 영어 등 핵심 교과에 도입하는 '과목중점형' 2백40~2백60개교에는 학교당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교과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형' 3백50~3백70개교에는 학교당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를 도입해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전국 1천3백80여 개교에 학교당 평균 5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 방과후 학교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개를 육성하고 학부모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전체 학생의 75퍼센트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4백 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5천만원씩 총 6백억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해 교육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엄마품 멘터링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정 학생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병행한다.

이와 별도로 학원과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 징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 등을 단속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노경원 사교육대책팀장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정부는 교과교실제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한국인

예부터 가장 중요한 나랏일은 가난을 없애는 것이다. 백성이 두루 먹고살기 편하면 태평성대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정민선(40) 씨의 발걸음은 오늘도 가볍다. 몸이 고되긴 하지만 6개월 전의 암울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삼남매를 둔 정 씨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간판 일을 하는 남편의 일거리가 줄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식비라도 벌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 내내 일해도 30만원 벌기가 힘들었다. 어느새 월세는 3개월 이상 연체됐고, 도시가스도 끊겨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들의 급식비, 교재비, 학원비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취업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 어디에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런 정 씨에게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큰 힘이 됐다. 이곳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취업적성검사와 직업교육을 받은 뒤 어엿한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로 취업하게 됐어요."

경력단절 여성 위한 새일센터… 2만여 명 취업 성공

서울 목동의 한 어린이집에 취업한 정 씨는 매일 아이들이 먹을 50인분의 간식거리와 점심식사를 준비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쉽지 않은 일에 허둥댔지만 이젠 자신이 차려주는 음식을 기

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퇴근시간까지 늦춰가며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를 고민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

정 씨가 새 일자리를 구해 안정을 찾자 집안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없어 짜증만 내던 남편이 요즘은 가끔씩 아내를 위해 저녁식사를 차리기도 한다.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때문에 더 힘들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가족들 덕분에 피로가 확 풀려요."

정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학원에 다닌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는 그를 위해 새일센터는 학원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 씨는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된 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족과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을 원하는 실직 및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새일센터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내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55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만6천4백여 명이 이곳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 및 창업 상담을 받았고, 이 중 2만2천3백22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여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올해 10만여 명이 직업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3만7천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따로 떨어져 있던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을 함께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직업상담원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안내받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에는 직장 적응을 돕는 주부 인턴제나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직장 적응에 문제는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준다.

여성부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 정민선 씨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생겨 좋다고 기뻐했다.

워크넷과 일모아시스템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사이트다. 워크넷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각종 취업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벌이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월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퍼센트)'과 '희망근로 프로젝트(8.4퍼센트)'가 정부의 여러 서민정책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 10만~20만명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취업자 수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입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데다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사를 설득,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적극 펼쳐왔다. 이를 위해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그 결과 노동부가 1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7.7퍼센트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38.7퍼센트), 금융업(37.4퍼센트)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넷(www.work.go.kr)과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사이트다.

워크넷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각종 취업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워크넷에서는 각종 취업교육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 능력 계발, 생계 지원, 실업급여, 창업 지원, 재직자 훈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비닐벨트 풀고 전매 묶고 서민 보금자리주택이 뜬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은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총 32만 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

9월 22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평일 낮인데도 홍보관에는 보금자리주택을 알아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2층 상담코너에서 만난 치과기공사 김기동(40) 씨와 주부 지미경(39) 씨 부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 5퍼센트'에 도전할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중 한 곳인 인천에 살면서 미성년인 세 자녀 민준(10), 민지(7), 민주(3)를 두고 있어 우선공급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부평동에서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가 안 났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나와서 참 반갑습니다."

이들처럼 홍보관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3백~5백명, 주말에는 8백~1천명가량 찾아온다.

최근 무주택 서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이하 8·27대책)'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괄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 주택소유 유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2012년까지 수도권 32만 가구로 물량 앞당겨 공급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기로 한 이 대책의 모태는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하 9·19계획)으로 당초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 등 총 1백50만 가구(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동아DB

9·19계획에 비해 8·27대책의 다른 점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앞당겨 공급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당초 2012년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8·27대책에서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던 20만 가구분 건설을 앞당겨 2012년까지 총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외 수도권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도심 재개발분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분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따라서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60만 가구분이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29만2천 가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조기공급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적어도 연간 2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야 안정선인데, 2008년 19만8천 가구(인허가 기준)에 그쳐 2007년 대비 35퍼센트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만1천 가구만 인허가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퍼센트 감소했다. 전세금 상승도 불안요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전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9월 현재 전세금이 103.8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지수가 10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사상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물량 보충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벨트, 창고벨트"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DB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주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훼손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 단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촌.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 공급 계획(2012년까지)

지역	택지	이전 대책(2008.9.19)	변경 대책(2009.8.27)
수도권	그린벨트	12만 가구	32만 가구
	신도시	20만 가구	20만 가구
	도심 내	8만 가구	8만 가구
지 방		20만 가구	20만 가구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 해제될 그린벨트는 78제곱킬로미터 분량으로, 당초 지정된 그린벨트 총량 5천5백 제곱킬로미터 중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선에 책정되는 것도 서민들의 관심사다. 예상되는 시세차익 때문에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훼손된 그린벨트 78㎢ 해제… 도심 인근 주거공간 마련

이에 대해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장인석(51) 소장은 "도심 재건축이 정체 상태에 있는 현 실정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도심과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을 위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전매제한 강화 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 공급량의 20퍼센트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즉,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저축 1순위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혼자여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2008년 기준 평균 3백11만5천원)를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제에 따른 청약 당첨자는 청약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결정, 기존 청약제도에 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부부들에게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주택은 9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부터 적용돼 공급된다. G

글 · 최은숙 기자

보금자리주택 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Tel 1588-9082

신용등급 낮아도 노점상 해도… 자활 의지 있으면 지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시장 상인,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이 그들의 빈곤 탈출과 자립을 돕고 고금리 사채의 늪에서 구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싶어요.”

서울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에서 ‘데시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재연(44) 씨는 지난 7월 ‘희망 365 지원사업’을 통해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줄곧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경 씨는 3년 전 경험과 자신감을 믿고 아파트 1층 집을 세내어 창업에 나섰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데다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 올려줄 수밖에 없었고, 원아들이 줄어든다고 교사를 바로 줄일 수도 없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이 한두 개씩 있어 인테리어 등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은행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는 데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소상공인진흥원을 알게 되어 정책자금을 받게 됐으니 운이 좋았죠.”

경 씨는 정부 지원 덕분에 자리를 옮기지 않고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정원이 19명인 데시앙 어린이집에는 현재 16명의 어린이와 5명의 교사가 있다.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야간보육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경 씨는 희망이 있다며 밝게 웃었다.

‘저신용·무점포 상인 특례보증’을 통해 3백만원을 지원받아 방충망 제작, 수리 일을 하게 된 최윤선 씨 부부.

경 씨가 지원받은 ‘희망 365 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여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는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원은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탈출과 자립 기반 마련,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이자는 연 3퍼센트다. 3개월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경남 양산시에서 붕어빵 장사와 방충망 설치 일을 하는 최윤선(57) 씨는 지난 4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으로 3백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은 돈을 전화카드 다단계사업으로 다 날린 데다 빚까지 지고 자포자기했던 그는 특례보증을 통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희망 365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에도 지원

최 씨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도 누가 부탁하면 섀시도 달아주고 고장난 것들도 고쳐줘 손재주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 재주를 살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던 그는 대출받은 3백만원으로 장비를 갖춘 뒤 주문이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워낙 일을 꼼꼼히 하니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꽤 늘었다.

최 씨가 지원받은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은 서민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업자나 노점상들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및 보증 기간은 최대 5년. 대출 금리는 7.3퍼센트 이내로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6개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보증신청서와 사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은 시장상인회의 확인서, 노점상들은 인근의 상인, 아파트 부녀회, 통·반장 등의 사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과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인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정경택 기자

경재연 씨는 "희망 365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다.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올해 3분기의 경우 4.22퍼센트(변동금리)다.

또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은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5년 이내에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금 지원 내용과 절차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같다.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도 운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며 대출 및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소액대출(마켓론)'에 관심을 가져봄직하다. 5백만원 이내 금액을 4퍼센트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에서 두부 판매점을 하는 박진효 씨는 얼마 전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시장 상인들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데다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단위 등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갚아나갈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휴·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사용한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에 전액 상환토록 했으나 8월부터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보하고, 지자체의 2차 보전금리 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 시까지 인정하며, 사업장의 지역 이전 시 일시 회수하는 지자체 자금도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예하고 있다.

그동안은 경기침체로 휴·폐업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약 12퍼센트에 달하는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휴·폐업으로 청산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재산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해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휴·폐업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G

글 · 이혜련 기자

중소기업청 Tel 1357 smba.go.kr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700 www.sbdc.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Tel 1588-5302 sbdc.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Tel 1588-7936 icredit.or.kr
전국상인연합회 Tel 042-257-3873 ukma.or.kr
소액서민금융재단 Tel 1600-5500 mif.or.kr

조영철 기자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집 없으면 월세도 소득공제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無)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영세사업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5백만원 이하의 결손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약 4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사업자들의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무서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체납액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덜 받도록 했다. 체납액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속해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사람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정보가 제공되는 체납자 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납세금은 원금부터 갚아나가도록 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체납세금 납부 시 이자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의 40퍼센트(연 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5월 새로 나온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연 1백2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4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도서지역 면세 연장

농어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면세 기간도 원래 올해 말까지였으나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덕분에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가 3년 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학생,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광산의 종업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면제하기로 했다.

또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임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가지가 더 늘어났다. 이들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민주당 김재균 의원

"서민정책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대통령이 서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됐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김재균(57·광주 북구을) 의원은 "서민 민생정책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아직 서민들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격려도 잊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입니다. 요즘 들어 통신비 인하 등 여러 가지 서민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많은 국민이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사연을 편지로 보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 이야기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서민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민생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서민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시급성을 감안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생과는 무관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을 하느라 복지·교육예산 같은 진짜 서민예산은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서민과 동떨어진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민생대책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우선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연체이자율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돈이 없어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학자금 지원을 하고 대출 이자도 경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와야 합니다.

김재균 의원은 서민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기대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피해가 가장 먼저 오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 받는 분들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정부 정책정보지의 제호처럼 서민이 진정 '공감'할 수 있는 서민정책을 정부가 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없을 때 아프면 더 서럽다" 저소득층 50만 가구 보험료 절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프면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 민생안정을 위해 의료복지 서비스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의료복지

올해 여덟 살 된 정현이(가명)는 세 살 때부터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경기를 하고 팔다리가 자주 마비돼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정현이 부모는 뇌수술을 통해 아이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부담돼 그동안 주저해왔다. 그러던 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돼 병원비 부담이 줄어 수술을 결심했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입원비와 외래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률을 종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가입돼 있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백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25만8천7백75명(9월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강성안 주무관은 "작년에 집계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5만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등록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까지 확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50만 가구의 보험료를 50퍼센트 경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82만명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내리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도 6개월에 기존 1백20만원인 것을 60만원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의료비로 1백30만원 정도 썼다면 과거엔 1백20만원을 초과한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지금은 60만원을 초과한 70만원을 돌려받게 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와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9만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3백만원 이내), 생계유지비(1백27만원, 4인 기준) 등을 최장 4회까지 지원해 기초생활 유지를 통한 자립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에게 제공됐던 장기요양 서비스가 장애인에게도 적용돼 각광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씨는 "기존 활동보조급여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줘 장애인들이 좀 더 폭 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는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나라당 대변인 조해진 의원

"친서민 정책, 가시적 성과 곧 나타날 것"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고학했기에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잘 알아 친서민 정책을 잘 펼칠 것"이라며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의 서민철학은 확고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서민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했던 세계경제가 우리나라부터 가장 먼저 되살아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에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한나라당 조해진(46·경남 밀양·창녕) 의원은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 "경제위기의 막바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정부의 서민정책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변인으로서 민생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정부의 서민·민생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정부가 국정기조를 친서민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서민이지만, 거꾸로 형편이 좋아질 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들이 맨 나중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에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택, 금융, 교육, 복지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친서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많이 내놔야 합니다. 결정한 정책이 현장까지 와서 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게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민·민생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마다 의미가 있고 수혜계층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가난한 대학생들이나 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들 다 죽이는 소위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도 서민경제, 동네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민·민생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정부가 더 많은 정책들을 내놓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공감형 정책들이 많아야 합니다.

또 현장 수요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정책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위에서 결정한 정책이 현장까지 와서 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불편하고 답답한 법령 oklife.go.kr로 제안하세요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생활공감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 공모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생활공감 정책과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서민들의 삶을 한층 편리하고 알차게 바꿔놓았다.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은 국내외 농수산물뿐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생활 공감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주부 김희정 씨는 마트에서 1회용 봉투 대신 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쇼핑한 물건을 1회용 봉투에 담아오면 버리기 일쑤였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쇼핑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리고 재질도 견고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한다.

마트에서 주는 쇼핑백 겸용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마트에서 쓰는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쇼핑백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고 강도도 높였다. 현재는 이를 사용하는 마트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이 건의하고 함께 추진하는 생활공감 정책

1회용 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공감 정책이 국민 소통과 친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두 2백15건의 생활공감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이미 추진을 완료한 정책은 1백51건에 달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실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

장 요금할인,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도입, 잠자는 보증금 및 예치금 찾아주기,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은 대표적인 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을 결정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덕분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1백39만명이 7백11억원을 돌려받는 혜택을 누렸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친 경차택시와 여성전용택시 운행은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했거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생활공감 과제 중 아직 완료하지 않은 50건은 연내에, 14건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올해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 운전면허 벌점 폐지 등 68건 법령 개정

법제처는 법제 선진화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달성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기존의 법령 정비사업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는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2천5백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큰 2백1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등 이미 개정 완료된 법령도 68건에 달한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개정을 추진 중인 과제도 81건에 이른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행정규칙 일몰제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와 통합 실시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입양기관을 알선받지 못한 아동의 입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개선 사례로 꼽힌다.

온라인 통합정보 서비스 확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서비스도 인기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온라인 사이트(oneclick.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령 이용자의 유형을 국민 실생활과 생업 중심으로 분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풀어놓아 한 번에 모든 관련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분야는 84개에 이른다.

지난 2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정, 화물자동차 운전 등 일반 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강화됐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go.kr)'도 국민들이 애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농수산물의 회수·검사 정보에서부터 안전관리정책, 위험정보 교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부들은 구입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각각 분리해 운영하던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이 시스템은 국내 농수산물은 물론 수입 농수산물, 과자나 분유 등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 풀어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식품정보 제공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위험정보도 신속하게 수집해 상시 제공한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직접 발견한 문제와 피해 사례 등을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정부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 벌점제를 폐지했다.

일러스트 · 채홍석

마음까지 위로하는 따뜻한 정책

"벼랑 끝에 서도 희망 잃지 마세요"

대전시 서구 내동 이주복 씨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어머니 재활치료

10년 전 자궁암 말기도 잘 이겨내고 별 탈 없이 지내오던 어머니가 3년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어머니가 2년 반 동안 병원에 계실 때 주말과 휴일마다 식구들이 병원에 들러 번갈아가며 보살펴드렸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몸의 왼쪽이 마비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이 에미가 병마를 이겨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러나 2년 반에 걸친 어머니의 오랜 병원 생활로 치료비 부담과 함께 가족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올해 초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접수시켰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위원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방문 조사를 한 후 2등급으로 판정해주었다. 이후 가족회의를 통해 시설급여보다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재가급여가 낫겠다는 생각에 재가급여를 신청했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훈련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으로 안심하고 재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한 걸음씩 발을 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한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명하 씨

대학 다니며 취업 준비… 싱글맘도 할 수 있어요

"직장 경험도 없는 네가 어떻게 애를 먹여살릴래? 웃기는 소

리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애나 키우고 살아."

이혼을 요구하는 내게 도박에, 바람까지 피우고 다니던 전 남편이 비웃으며 했던 말이다. 고졸 학력에 직장 경험도 없는 나로서는 그 말을 불문율처럼 믿었다. 결국 힘겨운 소송 끝에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인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먹고사는 게 막막해졌다.

어렵게 사시는 친정 부모님은 물론 바쁘게 사는 형제들에게 손 벌릴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죽을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로 눈물범벅이 돼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주간에는 근로학생 혜택도 주어진다고 했다. 직장도 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도 이룰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정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나는 현재 전주비전대 사회복지경영과 야간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년 2월이면 사회복지사로서 당당히 전문직업인의 대열에 서게 된다. 벼랑 끝에 선 모자가정의 가장인 나를, 여섯 살짜리 딸아이를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이었다. 앞으로 내가 받은 이 혜택을 세상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싶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김지연 씨

남편 투병 중 자녀 무한돌봄 서비스에 감동

2007년 어느 날,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어린 아들이 119에 전화를 빨리 한 덕에 남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CT 촬영 결과 남편은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이 수원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진 뒤 길고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아이들 맡길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것이 시청에서 만든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였다. 시청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위기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두 달가량 보육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었는데 공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챙겨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등 성심성의껏 보살펴줘 감동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학자금 지원, 위기가정 보육교사 파견,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하나하나가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는 지원제도다. 어려운 시기를 한결 쉽게 넘도록 도와주는 정책의 혜택을 받은 서민들은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남편은 몸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복직을 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다. 완전히 고립돼버렸던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선생님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가정처럼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서은주 씨

부모님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로 한시름 놨어요

부모님은 결혼했을 때부터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사셨다. 언니와 내가 태어난 후에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셋방, 돼지 농장, 세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골집 등 가족들은 일 년에도 몇 번씩 이사를 하며 힘겹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급하게 어머니를 찾으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이 떴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행에 가 신청서류를 접수시켰다. 발표가 있던 날 부모님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되어 1994년 12월 4일 경기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46제곱미터의 아파트지만 4백60제곱미터만큼의 감사함으로 15년째 살고 있다.

부모님 기억에는 이제 이사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만든 영구임대 아파트는 좁아서 불편할 때도 있고 옆 동네 부촌 아파트에 비해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75세가 되신 아버지와 62세가 되신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돼 행복하기만 하다. G

정리 · 김민지 기자

김명하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원하던 대학 공부를 하며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봉달이의 마지막 레이스

이봉주 10월 전국체전에 고향 충남대표로 특별한 은퇴식

수줍은 듯 껌벅껌벅하는 눈, 누구에게나 친근한 미소로 '봉달이'로 불리는 국민 마라토너. 마흔을 코앞에 둘 때까지 우직하게 선수생활을 계속해온 한 우물 파기의 달인, '봉달이' 이봉주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된다.

오늘도 '봉달이' 이봉주는 달린다. 마라톤 은퇴 무대로서 조촐해 보이는 전국체전을 마지막 레이스로 택한 이봉주는 연일 훈련에 여념이 없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동아DB

최근 은퇴를 공식 선언한 마라토너 이봉주(39)가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전에 참가해 마지막 열정을 태운다. 2001년 제105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의 은퇴 경기로서 전국체전은 다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봉주는 "고향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봉사"라며 오늘도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맨다.

은퇴를 앞두고 소속사 삼성은 이봉주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국내외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완주한 뒤 은퇴식을 여는 방안과 전국체전 출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이봉주는 "고향이 충남 천안 성거읍인데, 지금까지 국제 경기에 참가하느라 고향을 위해서는 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10월 체전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할 생각"이라면서 "우승이나 기록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했구나, 참 잘 뛰었구나 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 대회. 기록도 의미 없다면 나태해지기 쉽다. 하지만 이봉주와 '태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 다른 별명이 '성실맨'인 이봉주는 요즘 10월 21일 레이스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30킬로미터 이상을 뛴다.

현재 수원과 공주를 오가며 훈련 중인 그는 해가 정점에서 내려온 오후 3시면 어김없이 훈련을 시작한다. 젊을 때라면 몰라도,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매일 30~40킬로미터를 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봉주는 "젊을 때보다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기회는 이제 한 번 뿐이다. 어느 때보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다"고 열의를 보였다.

동아DB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은퇴 후 지도자로 다시 설 꿈을 꾸고 있다.

한국 육상은 이봉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세운 풀코스 마라톤 40회 완주(42회 도전)는 다시 나오기 힘든 기록이다. 1990년 전국체전 당시 약관의 마라토너 이봉주는 생애 처음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때 기록이 2시간19분15초.

이후 그는 1998년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시간8분 벽을 깼고(2시간7분44초), 같은 해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다. 1999년 삼성전자로 팀을 옮긴 그는 2000년 2월 도쿄 마라톤에서 또 한 번의 한국 신기록(2시간7분20초)을 세우면서 '국민 마라토너'로 우뚝 섰다.

풀코스 40회 완주… 이름 딴 '이봉주 마라톤'도 열려

그의 마라톤 인생 하이라이트는 2001년 보스턴 마라톤. 1947년 서윤복 선수 이래 반세기 만에 그는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게 그의 마지막 메이저 타이틀이었다.

최근엔 그의 이름을 딴 마라톤대회도 열렸다. 현역 육상선수 이름을 딴 달리기 대회는 이례적이다. 9월 13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1회 이봉주 홍타령 마라톤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그는 참가 시민들과 10킬로미터를 함께하며 호흡을 골랐다.

"은퇴 후 한국 육상 새 스타 키우는 게 목표"

이봉주는 "여러모로 뜻 깊은 대회였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뛰었다. 조카와 큰아들 우석(7)이가 5킬로미터를 완주했고, 작은아들 승진(6)이는 절반 정도 뛰었다. 걷다 뛰다 하면서 겨우겨우 완주했지만, 우석이가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어찌나 기뻐하던지, 지금도 밖에 나갈 때면 메달을 목에 걸고 나간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고향의 영웅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응원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파이팅' '힘내라' 등 응원도 해주셨다. 앞으로 은퇴한 후에도 이런 생활마라톤에는 가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며 즐거워했다.

이봉주가 은퇴하면 한국 육상에서는 마지막 남은 스타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는 "나도 불쑥 '더 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두려움은 없다. 뭘 하든 여태껏 해온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은퇴 후 이봉주는 한국 육상의 새 스타를 키우는 게 목표다. 그는 "마라톤 엘리트를 발굴하고 지도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2의 인생을 앞두고 걱정도 많다. 최근 젊고 잘 뛰는 청년들이 마라톤을 기피한다는 것도, 재목을 만났다 해도 자신의 손으로 마라톤 스타를 키워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는 "마라톤에 적합한 인재들은 여전히 많지만 요즘 젊은 선수들은 힘든 육상 대신 축구나 야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로 빠지려고 한다"며 "마라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의 남은 바람은 '좋은 지도자'다.

"앞으로 한국 마라톤 발전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 후 내 경험을 살려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어요.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G

글 · 온누리(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병신춤 대가 공옥진 여사 뇌졸중 투병

"恨의 무대 다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잊고 지냈다.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기, 익살스러운 표정연기 하나로 시름을 달래줬던 그는 바로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 씨다. 어디서든 신명 나는 무대를 선보이던 그가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병마와 싸우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공옥진 씨가 전남 영광군 교촌리 자택에서 젊은 시절 각종 공연대회에서 수상한 상패를 보며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찾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공옥진(78) 씨의 집. 대문 우체통에는 거두지 않은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석 달 전에 보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올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통지문이었다. 안내용지가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공 씨가 그동안 얼마나 자주 병원을 찾았을지, 또 병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니 30대 후반의 간병인이 나왔다. 간병인은 5년 전 영광군청 지원으로 건립된 국악전수원에 딸린 양옥형 한옥의 문간방으로 기자를 안내했다. 13제곱미터 남짓한 크기에 침실과 거실, 부엌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방이 바로 공 씨의 거처였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공 씨는 기자를 다정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표정만 웃고 있을 뿐, 병색이 역력했다.

"말을 길게 못해요. 말을 하면 왼쪽 얼굴이 너무 아파요."

공 씨의 첫마디다. 발음이 부정확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그 뜻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공 씨는 인터뷰 내내 어눌한 말투로 "예" "아니오" 식의 단답형 대답만 했다. 때론 말 대신 고개와 손짓을 사용하기도 했다. 통증 때문인지 두세 발자국도 걷지 못했다.

두 번째 찾아온 뇌졸중… 거동조차 힘들어

방안 한쪽 벽에는 외출복 네댓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아랫목에는 초봄에나 덮는 이불이 펴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선을 끈 것은 그가 손을 뻗어 닿을 만한 곳에 약봉지와 함께 놓인 거울과 사진첩이었다. 아픈 와중에도 그는 자주 거울과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화려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곤 한다.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묻자 공 씨는 "카네기홀, 라스베이거스, 영국 국제예술제…"라고 더듬더듬 말했다. 순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공 씨가 이처럼 힘들게 사는 것은 뇌졸중과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다. 5년 전인 2004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서울 여의도 KBS에서 녹화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1998년에 이은 두 번째 뇌졸중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몸의 왼쪽 기능이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 근육의 통증이 심해지는 3차 안면신경통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다.

그의 불행은 설상가상으로 이어졌다. 2년 전 산책을 나갔다가 집 앞 큰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뇌졸중으로 몸의 기능을 잃은 터라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공 씨가 영광에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것은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다. 처음엔 만년의 예술혼을 불태우며 뇌졸중도 이겨낼 것 같았다. 한동안 그는 뇌졸중을 딛고 국내외에서 공연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동아DB

공옥진 씨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독창적인 '병신춤'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을 울리고 웃겼다.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는 그의 투혼은 결국 두 번째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그는 간병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며 질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간병인 김순옥 씨는 "공 선생님은 하루 식사량이 몇 숟갈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력이 전혀 없다. 통증이 심해 병원을 자주 찾는다"고 전했다.

현재 그의 하루 일과는 20제곱미터 정도의 마당에서 하루 한두 차례 산책하는 것과 매일 병원에서 침과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줄이는 일이 전부다. 그는 이날도 통증이 심해져 인터뷰 도중 병원으로 실려갔다.

공 씨는 자신의 병마보다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음을 더욱 가슴아파했다.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찌 다시 공연을 할 수 있을꼬!" 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마저 안타깝게 했다.

공 씨는 1933년 전남 순천시(옛 승주군) 추동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공대일 명창으로 당시 판소리 명창인 공창식, 공기남 씨와는 한집안이다. 판소리 명문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공 씨는 어려서부터 특출했다. 당대의 춤꾼과 명창들에게 판소리를 익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희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최승희 씨 밑에서도 생활했다.

공 씨의 '병신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8년 서울 공연 이후부터다. 그의 춤은 독창적인 1인 창무극이다. 판소리나 민요와 같은 노래와 재담, 몸짓인 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극을 말한다. 그는 무대에서 혼자 2시간 동안 창과 무용, 연기를 하며 관객을 웃고 울게 만드는 그만의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했다.

병신춤은 그야말로 그가 살아온 삶을 농축한 것이다. 그는 신체장애를 가진 동생과 조카들을 보며 자랐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광복 후에는 가족과 헤어져 신체장애가 있는 걸인, 각설이패와 함께 생활했다. 그때 그는 일반인과 다르게 손과 발을 뒤틀거나 꼬고 다시 풀어헤치며 흥과 멋을 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병신춤을 이끌어낸 것이다.

수제자 모두 다른 길 찾아 '병신춤' 맥 끊겨

그의 서민적인 1인 창무극은 미국 링컨센터와 카네기홀, 일본, 영국, 유럽 등지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의 수제자 3명 모두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아무리 배워도 공 씨의 독창적인 '춤'을 터득하는 게 불가능한 데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사실 그의 병신춤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무척 많았다. 방학 때만 되면 그의 집 앞에는 문하생을 자청하는 소리꾼들이 줄을 섰다. 그러나 모두들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다.

아직도 그는 기능보유자다. 한때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무형문화재는 되지 못했다. '1인 창극'이 문화재 장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밑에서 배운 제자들 상당수가 무형문화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가 떠나면 병신춤의 무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평생을 바쳐 예술혼으로 지켜낸 그의 춤사위가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기록으로만 볼 수 있는 낡은 추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힘과 용기를 줬던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G

글과 사진 · 한현묵(전남일보 정치부 기자)

카페 '실버데이'는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음료, 여기에 '실버 바리스타'들의 친절한 서비스까지 더해 손님들에게 인기다.

지하철역 카페 '실버데이' 김미순·박미령 씨

카푸치노 만들며 제2의 인생 열어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할머니들이 있다. 지하철역 카페 '실버데이'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카라멜 라떼를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났다.

"아이스 카푸치노랑 스무디 주세요." "오늘은 딸기가 싱싱한데 딸기스무디는 어떠세요?"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전문직인 바리스타 하면 흔히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나오던 꽃미남이나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지하철 3호선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실버데이'엔 특별한 바리스타들이 있다. 어머니 같은 따스함으로 손님을 맞는 60, 70대 여성 '실버 바리스타'들이다.

실버데이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커피 전문점이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 6월 복지관 안에 '아지오(Agio)'라는 실버 카페를 만든 후 주민들 반응이 좋아 지난 4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주엽역에 각각 실버데이를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주엽역 실버데이엔 현재 김미순(60·사진 가운데) 씨와 박미령(60) 씨를 포함해 네 명의 실버 바리스타들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 김 씨와 박 씨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노년에 만난 새로운 도전이 즐겁기만 하다"고 말한다.

"노년에 만난 새로운 도전 즐거워요"

"처음엔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만들어줄 때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맛있다'며 빈 컵을 건네줄 때 정말 보람찼죠."(김미순 씨)

> 연령대가 다양한 손님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꽉 막힌 채 자신만 챙기는 노인은 되고 싶지 않다.

김미순 씨(왼쪽)와 박미령 씨(오른쪽)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바리스타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환갑인 나이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재미있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가족들에게도 한 잔 만들어주면 좋아해요."(박미령 씨)

전업주부였던 김 씨와 박 씨가 바리스타가 된 것은 지난 4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바리스타 취업 과정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료 조사나 모니터 같은 아르바이트나 그림, 운동, 꽃꽂이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덜했다고 한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 6월쯤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개설해 만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기수마다 10명 정도가 신청해 현재 3기까지 배출시켰다. 박 씨와 김 씨는 3기생으로 수료를 마친 후 이곳에 취직한 것이다.

"의무감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요"

교육은 2개월 동안 주 4시간씩 이론과 실기로 진행된다. 커피, 생과일주스 등을 만드는 법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법까지 자세히 가르친다. 김 씨는 "이론과 실기 교육을 거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평소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처음에 이론을 배우는데 카푸치노, 카페모카, 카페라떼 등 커피 종류가 많은 데다 낯선 이름들이라 좀처럼 외워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거기다 재료를 배합하는 비율과 만드는 순서는 어찌나 복잡하던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숙련이 되더라고요."

박 씨는 '항상 친절하고 웃는 모습으로 손님을 대한다' 등 교육받은 대로 10가지 근무수칙에 맞춰 손님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엔 그게 쉽지 않았다며 웃었다.

"일을 시작한 첫날 맨 처음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주문은 잘 외울 수 있을까, 음료수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은 누가 봐도 멋진 베테랑 바리스타가 됐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숙련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같은 실버 바리스타의 음료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어요. 손님에 대한 의무감이 아닌, 가족에게 주는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김 씨와 박 씨는 "바리스타란 음료 제조 기술과 더불어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직업"이라며 "그래서 항상 다양한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말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자신을 낮춰 젊은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연령대가 다양한 손님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며 "꽉 막힌 채 자신만 챙기는 노인은 되고 싶지 않다"며 웃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즐겁고, 매일 나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 행복하고, 일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이 있는 실버데이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약하면서 삶의 여유를 나누고 싶어요." G

글 · 김희연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실버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노인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의 하나로 만 60세 이상의 '바리스타'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들을 소개한다. 수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의 후 등록하는 것이 좋다.

기관	문의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02-375-5040 sdmbokji.or.kr
서울 월곡종합사회복지관	02-911-5511 ewolgok.or.kr
경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031-969-7781 withnoin.org
경기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031-366-5678 hssenior.or.kr
울산 문수실버복지관	052-247-3740 betogether.or.kr/munsu

“취재는 훈련처럼… 기사는 전투처럼”

〈국방일보〉 편집국을 가다… 15만부 발행 예비역 · 군사 마니아도 열독

흔히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이라고 한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군(軍)과 세상을 이어주는 창이 있다면 이는 바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다. 65만 육해공 전군에 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세상과 이어주는 다양한 뉴스를 담아내는 〈국방일보〉 제작 현장을 들여다봤다.

세계일주를 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자비(自費)로 간다. 둘째, 해군사관생도가 되어 4학년 때 세계일주를 하는 함정에 탄다. 셋째, 〈국방일보〉 기자가 된다. 그리고 해군사관생도 세계일주 함정에 함께 탄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주로 군을 대상으로 취재한다. 이 때문에 〈국방일보〉 기자들은 색다른 취재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부럽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즘은 그나마 함정 규모가 충무공이순신함(4천 톤급) 정도로 커졌지만 이전에는 1천5백 톤급 함정을 타고 석 달 동안 세계일주를 했죠. 항구에 머무는 것은 잠시뿐이고 계속 바다 위를 오가다 보니 멀미에, 스트레스에 환상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9월 21일 오후 〈국방일보〉 편집국에서 만난 김가영(38) 기자는 “장기 항해의 고충 때문에 요즘은 보름이나 한 달가량 함정에서 취재를 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다”고 전했다. 여성인 김 기자가 해군 함정에 타게 된 것은 최근 여군이 증가하고 해군 함정에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이 구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군 함정뿐 아니다. 잠수함과 전투기 탑승은 물론 포연이 자욱한 포격장과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처럼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는 비무장지대의 GP(경계초소)까지도 취재한다. 일반 언론사 기자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곳까지 취재가 가능한 점에서 〈국방일보〉 기자들의 자부심이 크다.

분대당 2부 발송… 1만4천 부는 개인 독자가 구독

하지만 고충도 적지 않다. 얼마 전 전투기에 타려던 한 기자가 공군 조종사들이 받는 중력가속도를 견디는 ‘G (Gravity)테스트’를 하던 중 목 디스크를 다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이 〈국방일보〉를 읽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정경택 기자

1 〈국방일보〉 편집국에서 기획회의가 열리고 있다. 2 좀 더 알차고 신선한 기사 제작을 위해 노력하는 〈국방일보〉 기자들.
3 위험한 현장에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 가야 하는 사람이 〈국방일보〉 사진기자다.

고 김 기자는 귀띔했다. 특히 사진기자들은 수시로 포탄 파편이나 화염에 노출되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위험한 취재를 무릅쓰고 지면 제작에 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국방일보〉를 사랑해온 애독자들 때문이다. 현재 매일 15만 부가 발행되는 〈국방일보〉는 군부대에 13만6천 부가 배포돼 분대당 2부가 들어간다. 나머지 1만4천 부는 예비역 대령 이상 군 전역자, 정부와 언론사 등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무료 배송된다. 개별적으로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들에게는 우송료(월 4천원)만 받고 배송해준다.

정남철(50) 취재팀장은 "분대당 2부가 들어가다 보니 병사들이 돌려보게 되어 아마 열독률로 따지면 국내 신문 중 최고일 것"이라며 "최근 군사와 무기 분야에 관심을 갖는 마니아 계층이 늘면서 국내 유일의 군사전문지인 〈국방일보〉를 개인적으로 신청해 보는 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우수한 전문인력'도 〈국방일보〉의 자랑이다. 한 예로 군사기획 취재를 담당하는 김병륜(38) 기자는 전쟁사나 무기 관련 전문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학창시절부터 각국 전쟁사에 심취했다는 김 기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를 읽기 위해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러시아어까지 공부해 관련 대형 사건이 터지면 러시아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뒤져가며 취재해 어느 기자보다 발군의 기사를 써낸다는 것이다.

〈국방일보〉 기자들은 잠수함과 전투기 탑승은 물론 비무장지대의 GP(경계초소)까지도 취재한다. 하지만 고충도 적지 않다. 특히 사진기자들은 수시로 포탄 파편이나 화염에 노출되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국방일보〉는 어지간한 국내 신문 못지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1964년 11월 16일 타블로이드판 2면의 지면으로 발간된 〈전우〉가 〈국방일보〉의 시초다. 이후 1968년 11월 16일 〈전우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전우신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히 쓴 글씨를 제호로 사용했다. 〈전우신문〉이 〈국방일보〉로 바뀐 것은 1990년 3월 1일부터다.

정 팀장은 "'전우'가 지금 우리 군의 종합적인 면모를 담기에는 좀 그릇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일보〉는 현재 매주 월~금요일 닷새간 12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외에도 방송(국군방송 TV, 라디오) 등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일보〉 취재기자는 모두 22명. 국방야전 8명, 군사기획 3명, 문화칼럼 4명, 사진 7명 등이다. 취재기자와 별도로 편집과 교열 기자 16명.

지면 구성은 군 관련 뉴스가 전 지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병사들과 세상을 이어주기 위한 국내외 뉴스, 휴식과 교양을 위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뉴스 등을 함께 싣는다.

제대 후 취업 고민 해소 위한 노력도

정 팀장은 "〈국방일보〉 역시 다른 언론처럼 독자 처지에서 생각하고 독자를 위한 지면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병들의 제대 후 취업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일보〉에 연재된 기사 가운데 화제가 된 것도 많다. '추억의 내무반' 코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가수 조영남 씨 등 사회 명사들이 자신들의 군생활을 솔직히 털어놓아 인기를 끌었고, 이 내용은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 밖에 '신병영 풍속도' '보병 무기 이야기' '한국의 병서' 등도 인기를 모았으며 특히 '곰신(군대 간 애인을 둔 여성을 지칭)'들이 쓰는 '곰신들의 수다'에는 모든 병사들이 마치 자기 애인인 듯 애정을 보내 병영 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국방일보〉 남상문 편집인은 "국방부 기관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 이슈를 보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유일의 국방전문지라는 자부심, 전문인력에 자부심을 갖고 새 소식에 목말라하는 병사들에게 매일 건강하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기분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현지 정보·의료대책 등 꼼꼼히 안내… 안전여행 '동행' 서비스

"해외여행 전에 동행을 찾으세요"

<www.0404.go.kr>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예상되는 해외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17퍼센트 줄어든 18만4천여 명이지만, 올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 수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자.

'멕시코시티, 소노라주 등은 여행 유의지역, 치와와주는 여행 자제지역입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멕시코 전역의 여행경보단계는 5월 22일자로 3단계(여행 제한)에서 2단계(여행 자제)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멕시코 여행을 계획 중인 대학원생 신민영(28) 씨는 최근 외교통상부가 보낸 '안전여행 안내 e메일'을 받았다. e메일에는 멕시코 각 지역에 대한 여행 안전도를 나타내는 경보단계는 물론 신종플루 동향, 치안상태(일반범죄 등), 정치정세, 안보상황(전쟁, 내란, 테러 등),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과 주의할 점 등이 꼼꼼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또한 해외를 여행할 때 꼭 챙겨야 할 현지 긴급 연락처, 비상 의료대책, 출입국 절차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여행경보단계 확인하고 영사콜센터 챙겨야

신 씨가 이런 정보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외교통상부가 개설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동행(同行)' 프로그램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된 '동행'은 해외로 여행하려는 사람을 위한 인터넷 등록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을 확인받은 후 여행지, 일정, 해외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을 입력함으로써 외교통상부에 전자 여행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급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 씨처럼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등록한 사람들은 9월 22일 현재 8천2백48명으로 다달이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해외 여행객들에게 '동행'과 같은 여행등록제가 각광을 받는 것은 '동행'이 단지 여행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과 재외공관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설마 해외에서 내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 의외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사고 건수는 많다.

지난해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 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초부터 2008년 6월까지 5년간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해자는 1만5천7백48명. 그중 해외에서 살해된 사람이 2백31명, 절도 및 강도 사건 피해 6천5백12명, 폭행 및 상해 피해 1천2백14명, 행방불명자는 1천1백82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사건이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3월과 6월에는 예멘에서 한국인이 5명 살

외교통상부 제공

여행경보단계 안내
TRAVEL WARNINGS
www.0404.go.kr
여행경보단계 확인은 안전한 해외여행의 첫걸음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를 여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처벌됩니다.
외교통상부

출국 전 여행 국가의 여행경보단계 확인은 필수다.

동아DB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올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은 18만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장 입구.

해뒀다. 외교통상부가 해외 공관들을 통해 추산한 최근 자료(정확한 집계는 9월 말 예정)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한국인 53명이 살해되고, 절도 및 강도 사건으로 6백37명이 해를 입는 등 여전히 안전 적색등이 켜져 있다.

이와 같은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것이 재외국민보호 제도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백경화(26) 서기관은 여행 전에 먼저 여행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행경보단계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행동 요령이 지정돼 있으니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는 크게 4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하다.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 금지'로 한국인의 여행이 금지된 국가들에 적용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3국이 여행 금지국이며,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세 나라를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3단계는 되도록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면 하는 '여행 제한', 2단계는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여행 자제', 1단계는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할 '여행 유의'에 속한다.

현재 전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1~4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는 83개국이다. 같은 국가 내에도 지역별로 경보 단계가 다른 곳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 현황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해외여행 전 '동행'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동행과 같은 여행등록제가 각광 받는 이유는 해외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과 재외공관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중 꼭 챙겨야 할 연락처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 중인 영사콜센터의 전화번호다. 한편 도난 등의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관에서 위촉한 영사협력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G 글·최은숙 기자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Tel **02-2023-8449**
영사콜센터 (무료) Tel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
(유료) Tel **국가별 접속번호 +822-3222-0404**
국 내 Tel **02-3210-0404**

"우리는 희망 담은 핸드백 만들지요"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사회공헌기업 '고마운 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회사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고 열매나눔재단과 SK에너지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사회공헌기업 (주)고마운 손에서는 탈북자, 한부모 여성가장, 장애인 등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사회공헌기업 '고마운 손'은 일을 시작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월 5천여 개의 핸드백과 지갑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투자 인프라구축 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회공헌기업 (주)고마운 손이 '희망의 문'을 열었다. 사회공헌기업이란 탈북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근로빈곤층을 고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근로빈곤층에 재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고마운 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공헌기업으로는 지난 3월 문을 연 블라인드 제조업체 메자닌-에코원에 이은 제2호 사회공헌기업이다. 특히 고마운 손에는 유명 토털패션브랜드인 (주)쌈지가 파트너십 기업으로 참여해 앞으로 5년간 제품 하청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홍정기 사회통합과장은 "인건비 보조 및 후원에 의존하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 정부의 연계 협력 모델을 발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취약계층의 복지 및 역량 강화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기업, 정부의 협력모델 개발 및 지역·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단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30여 명 생산보조자 채용… 기술지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천4백80여 제곱미터로, 규모로만 따지면 국내 최대 핸드백 제조업체인 고마운 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40여 명이다. 그중 10여 명은 핸드백 및 지갑 제조 기술 경력 10~20여 년을 자랑하는 숙련기술자들이고 나머지 30여 명은 탈북자, 고령자, 한부모 여성가장,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들로 구성된 생산보조자들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거쳐 생산현장에 배치돼 숙련기술자들에게서 철저한 기술지도를 받고 있다. 고마운 손이 문을 연 것은 8월이지만, 이들이 기술지도를 받고 일을 시작한 지는 어느새 석

달이 되어가고 있다.

“재봉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핸드백을 세상에 내놓는 게 꿈이에요.”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석아현(30) 씨는 가족을 북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탈북자다. 그에게 고마운 손은 남한에서 잡은 첫 직장이자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해준 고마운 일터다. 북한에서는 계속 사무원으로 일했고 정식으로 재봉 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취업 2개월여 만에 어렵기로 소문난 컴퓨터 미싱까지 척척 다룰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꿈을 향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상품개발실에서 디자인과 상품개발을 돕고 있는 구주미(45) 씨 역시 고마운 손에 입사한 뒤 잃었던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홀몸으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인 그는 “학습지 교사, 일용영업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꿈만 같다”고 했다. 원래 생산직으로 들어왔지만 남다른 디자인 감각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상품개발실로 특채되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의 꿈을 다시 꾸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유난히 밝다. 그들의 표정은 작업장이며 휴게실, 복도에 걸린 그림들처럼 화사하다. 여러 화가와 학생들이 기증한 이 그림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여느 공장들에 비해 훨씬 아늑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까지 갖춰져 있어 사원들의 작업능률도 높다.

올해 말까지 50명, 내년엔 70명 추가 채용도

이 회사 오형민 대표는 “지금은 월 5천여 개의 핸드백과 지갑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연말쯤에는 월 1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품 하청을 맡긴 쌈지 측에서도 고마운 손의 결과물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일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빠르게 기술을 익히고 좋은 제품을 출하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놀라게 된 것이다.

쌈지 패션유통사업부 이화주 이사는 “쌈지로서도 사회공헌기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분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다른 패션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쌈지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환율문제나 패션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운송문제,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면 국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돼 고마운 손에 하청을 맡겼다고 한다.

쌈지는 고마운 손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아 앞으로 핸드백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거기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론 고마운 손이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다. 오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비단 쌈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고마운 손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회사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마운 손은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취약계층을, 2010년까지는 70여 명의 취약계층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직업체험교육 및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해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마운 손이 더 크고 탐스러운 희망의 꽃을 피워나가기를, 그 향기와 꽃씨가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고마운 손’ 직원들이 상품개발실에서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에 특정경유차 검사까지

자동차 종합검사 한 번으로 끝!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로 이원화됐던 자동차 검사가 종합검사로 일원화됐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검사가 두 가지여서 헷갈리거나 자칫 검사 날짜를 미루다 과태료까지 물게 돼 낭패를 보던 일이 크게 줄게 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있는 차량.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가 통합되어 자동차 소유주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에 사는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가을 처남에게서 5년 된 중고 소형 승용차를 물려받았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차가 생긴 것이 무척 기뻤다. 비록 5년 된 차였지만 처남이 차를 깨끗하게 사용해 거의 새 차와 다름 없었다. 기분 좋게 자기 명의로 차량 등록을 이전한 A씨는 지난 겨울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고, 통지된 기간 내에 검사도 받았다.

그 후 A씨는 자동차 검사 통지서를 또 받게 됐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서가 중복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 A씨는 "통지서가 왜 두 번이나 나오지?" 하며 무시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차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 통지서였다. 그 후 A씨에게 무려 6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했다.

그동안 자동차를 보유하면 국토해양부 소관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안전도 검사)와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수도권 차량의 경우 정밀검사가 아니라 이보다 좀 더 강화된 '특정경유차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자동차를 보유하면 두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를 처음 소유한 A씨처럼 잘 모르거나 착각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해진 자동차 관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적지 않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최대 30만원까지, 정밀검사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이중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돼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던 자동차 검사 관련법을 주관 부처들과 협의해 통합, 한 번에 처리토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검사 시기는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해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돼온 것이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정밀검사인 '특정경유차검사'였다. 특정경유차란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은 출고 후 5년 경과, 3.5톤 이상은 2년 경과)이 끝난 자동차로서, 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다. 이 검사는 차종이 아닌 차량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검사비용 인하·과태료 납부 부담도 줄 듯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특정경유차 검사 포함)를 통합한 종합검사 제도를 담은 개정 법안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됐고, 3월 29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종합검사 시행일 이후 배출가스 검사 기간이 먼저 오는 경우 이는 무시하고 종합검사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기간에 종합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비용이 5만2천원으로 두 가지 검사 수수료인 평균 5만5천원(정기검사 2만2천원, 정밀검사 3만3천원)보다 3천원(평균 5퍼센트)이 인하돼 연간 약 1백13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검사를 하지 않아 내게 되는 과태료 납부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24 화
2011년 가을,
시베리아 아무르 강
글·이연수 그림·이호

올해는 좀 특별한 데로 가보자. 한국 어때?
진부해!

4대강 살리기 덕분에 먹을 것도 많아지고 아주 좋아졌대. 한번 가보자고.
쇠기러기
기러기목 오리과
학명: Anser albifrons

자긴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난 좀 특별한 걸 원해. 경치도 좋아야 하고….

그렇다면 더더욱 한국으로 가야지! 한국의 금강으로 가자! 금강에는 전10경, 후10경이라고 해서 스무 군데의 절경이 있어.
경치만 좋으면 뭐 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매력이 있어야지!

어허! 금강팔정도 모르시나?
착

나성리의 독락정, 영곡리의 한림정, 창벽 건너의 금벽정,
소학동의 벽허정, 월송동의 사송정, 공산성의 쌍수정,
정지산의 안무정, 유하리의 원상정, 여기에 수북정, 백화정,
몽뢰정, 원산정, 일사정까지 자태를 겨루고….

강의 질펀한 모래밭 넓게 흐르는 물,
하늘과 물이 한빛인데

바람 불면 푸른 주름살이오, 달 비치면 은(銀)물결이라~
남수문(南秀文)의 독락정기(獨樂亭記)' 중에서
착

4대강 살리기가 이 모든 장관을 한줄기로 이어놨구나~
얼쑤~
어머, 설득 당했네.

고향 가는 길 뻥 뚫어드립니다

'추석 교통정보' 온라인 서비스… 고속도로·국도 실시간 상황 안내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운조합, 교통안전공단 등 각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실시간 교통정보를 10월 5일까지 통합 홈페이지로 서비스한다. 철도, 버스, 항공 예매정보와 고속도로, 국도의 지·정체 등 추석 교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클릭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1 서울 강북구 정릉동에 사는 권정희(34·회사원) 씨는 지난해 추석 귀성길에 교통체증으로 크게 고생했다. 도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나은 교통수단을 택하려 했지만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불편한 데다 접속 폭주에 속도마저 느려 '설마' 하는 심정으로 차를 가지고 나섰다가 길에서 시간을 다 보냈던 것이다. 특히 올해 추석은 연휴가 짧아 고향 가는 길이 암담하기만 하다.

#2 경북 상주시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김태민(45·농업) 씨. 여든이 넘은 부모는 명절 때만 되면 자식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시시때때로 묻는데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전국 각지에서 각자 다른 교통수단으로 귀성 중인 가족들이 언제 도착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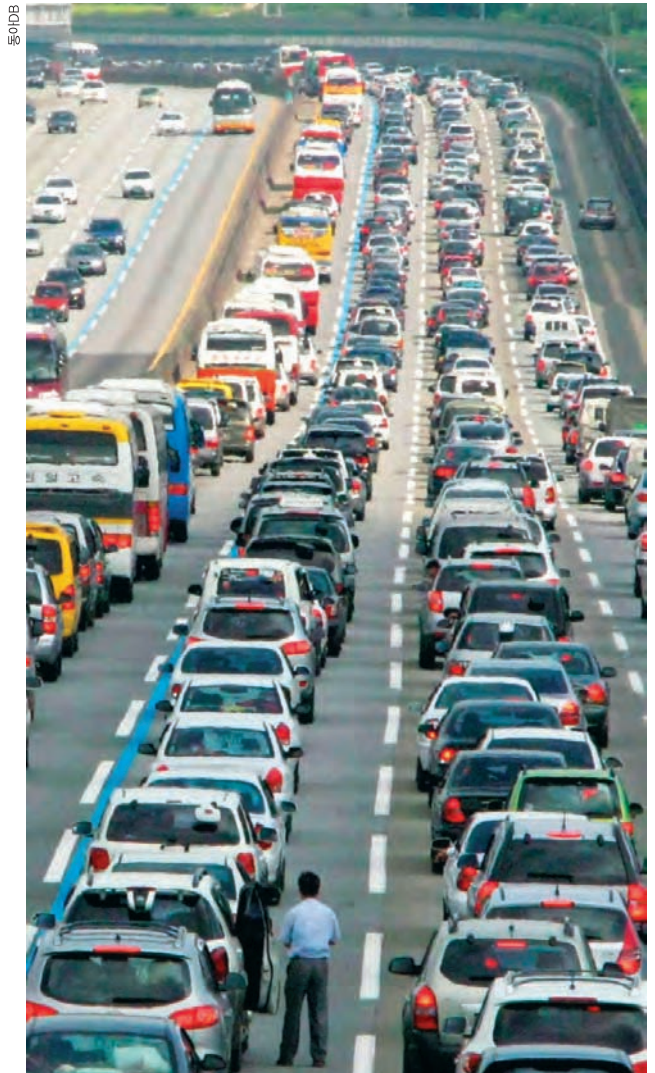
올 추석 연휴에는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 등 교통정보는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권 씨의 바람대로 한 사이트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대중교통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노트북,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체가 덜한 고속도로나 국도를 찾아 우회함으로써 빠르게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김 씨의 노부모 걱정도 이 사이트를 통하면 바로 해결된다. 자동차, 고속버스, 비행기에 배편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부터 국도, 철도, 버스까지 하나의 홈페이지에 담아

각각 따로 서비스되던 주요 교통수단별 교통정보가 통합된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 정내삼 대변인은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 사정이 궁금하고, 기차표가 없으면 시외버스를 알아보는 식으로 교통수단별 상호 대체이용 욕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따로 서비스되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승용차, 기차, 버스, 항공, 여객선 등 모든 교통정보가 하나의 홈페이지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집합돼 있어 귀성·귀경객들이 편리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고속버스, 철도의 구간별 출발 및 도착시간과 잔여석 여부, 전국 고속도로의 실시간 현황, 지역별 국도 상황에다 고속도로, 국도의 CCTV 화면 및 전국 교통정보(진출입 통제구간, 우회구간, 교통속보, 임시화장실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아DB

올해 추석에는 교통정보 통합 서비스로 고향 가는 길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교통정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0여 개의 유관기관과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추석 귀성·귀경길 날씨정보는 추석 일주일 전부터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추석 교통정보 **hangawi.mltm.go.kr**

긴급운행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차량’도 하이패스로 씽씽~

화급을 다투는 응급차, 소방차 등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올 연말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들 차량은 긴급운행 증명 시스템 등이 없어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도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나요?’ 한 누리꾼(네티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을 올렸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는 아마 통행료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생각은 절반만 맞다. 원칙적으로는 면제지만 진짜 긴급상황에서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1초가 아쉬운 소방차나 구급차가 다른 차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통행료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경우에 이들 차량은 하이패스 게이트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들 긴급운행 차량을 게이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급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 게이트 직원에게 ‘통행료 면제 차량’임을 확인받은 뒤 무료로 통행할 수 있지만 진짜 긴급상황에서는 정반대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용 단말기 · 지문 인식으로 인증… 응급상황 신속 대처

특히 연간 3천만 대 이상이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그동안 통행료를 할인받을 때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어서 하이패스 이용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표 참조)도 하이패스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게이트에 첨단 장비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이들 차량의 본인 탑승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할인율

대상	구분	감면 대상	연간 이용 차량 (2008년, 천대)	연간 감면액 (2008년, 백만원)
긴급자동차	면제 (100%)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1,650	3,082
장애인·보훈	할인 (50%)	장애인(1~6등급) 국가유공 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9,437	40,047
보훈	면제 (100%)	국가유공 상이자 1~5급	859	2,162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긴급운행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하이패스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로 연간 1백65만 대에 이르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 차량은 올해 12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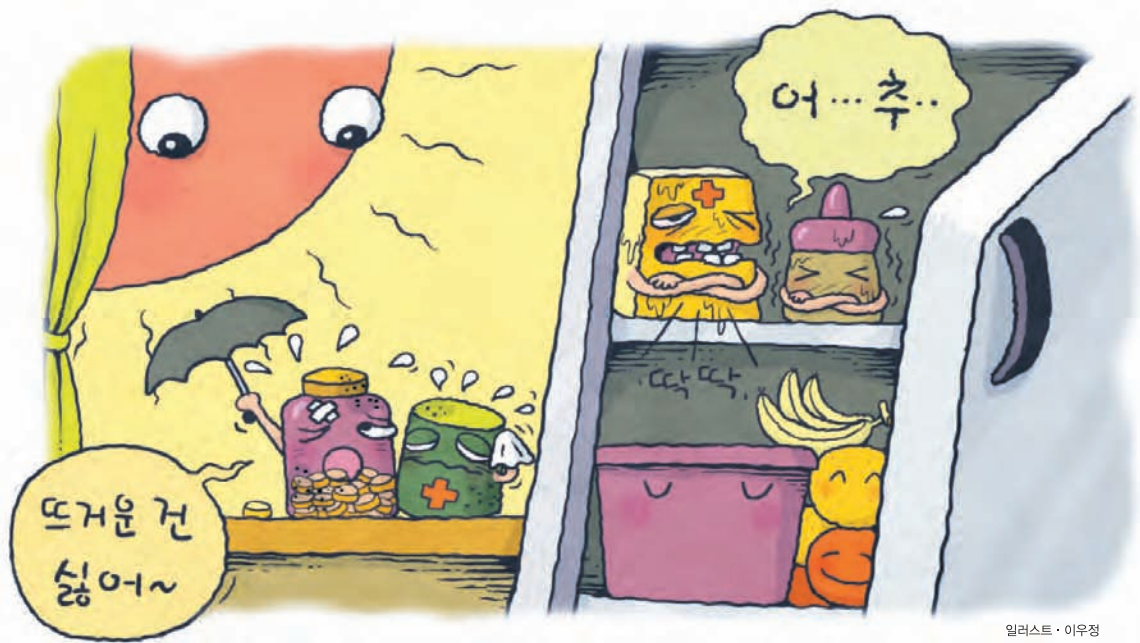
또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미리 지문을 등록한 뒤 차량 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인증하면 이용이 가능하므로 더욱 편리하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김내형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긴급운행 차량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톨게이트의 지·정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연합

올 12월부터 긴급운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적용된다.

일러스트 · 이우정

藥 잘못 보관하면 毒

예부터 약은 함부로 쓰는 법이 아니라고 했다. 약은 질병에 맞게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맞춰 써야 한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보관을 잘해야 한다. 잘못 보관하면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현주(31) 씨는 식품은 물론 화장품도 유통기간을 따져 따로 싸놓고, 화장품냉장고까지 사용할 정도로 꼼꼼한 주부다. 상비약도 마찬가지다. 늘 감기를 달고 사는 딸아이의 시럽감기약이며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먹이는 가루약, 남편의 위장약 등도 모두 변질될까 두려워 일부러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쭉 냉장고에 보관해온 아토피 가루약의 색깔이 변했기 때문이다. 아직 유통기한이 남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답은 약의 보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약물이 파손되거나 사용기한이 단축돼 원래 갖고 있던 효과를 상당히 잃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정윤 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냉장 보관을 해도 좋은 약이 있지만 반대로 약효가 떨어지는 약도 있고 오히려 변질되어 유해물질이 될 수 있는 약도 있다"며 "의약품 본래의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형태와 종류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약의 종류에 맞는 올바른 보관 방법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기 위한 보관 요령'을 알아보자.

의약품 종류별 보관 요령

알약 알약이 든 병이 햇빛에 노출되면 병 안쪽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 변질될 수 있다. 다른 병으로 옮기지 말고 원래의 용기에 넣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가루약 대부분의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자. 습도가 높은 냉장고나 욕실 수납장에 둬서는 안 된다. 색깔이 변했거나 굳었다면 폐기해야 한다.

좌약 체온에서 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봉한 즉시 사용한다.

시럽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실온에 보관한다. 복용 전 반드시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한다. 항생제 시럽 중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시럽을 만들기 위한 분말 항생제 시럽으로 만든 후 사용기한이 짧아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냉장 보관이 요구된다. 냉장 보관은 7~14일이 적정 기간이다.

안약 · 연고 연고는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차광 보관이 필요한 약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품 등 의약품 보관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온라인 복약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Tel 02-308-1709 medication.kfda.go.kr

비영리인데… 출처 표시했는데… 일부만 썼는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저작권, 일부만 인용해도 '걸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자료집을 제작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누리꾼(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과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1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을 접고 다시 회사원이 된 김영수(가명) 씨는 최근 자신이 만들어준 A회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1백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저작권자는 김 씨가 만든 B회사 홈페이지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김 씨는 이 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2 중학교 3학년 이은미(가명) 양은 얼마 전 블로그에 올린 노래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이 양은 그저 개인 블로그에 노래만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동아DB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근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많아지면서 저작권 문제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저작권 사용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자료집은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수익과는 무관한 개인 블로그(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자료에서는 '공보, 홍보,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의 면책요건은 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누리꾼들의 오해다. 저작권법은 출처를 표시했어도 면책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타인 권리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환경 만들어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하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5분짜리 노래 중 30초, 혹은 영화의 한 장면만 캡처해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올리는 것 역시 '걸면 걸리는' 저작권 침해행위다. 이 밖에 제3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할 경우엔 합법적인 콘텐츠만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료집 내용과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의 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되도록 자신만의 글과 사진으로 꾸미고 남의 것을 써야 한다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이를테면 '도토리' 등을 이용해 홈페이지 배경음악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안전하다.

둘째, 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자신의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라.

셋째, 홈페이지 용도로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콘텐츠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하나인 GNU 라이선스를 채택하면서 위키피디아 자료의 복제와 배포(전송 포함)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변경은 불허하고 있다.

자료집 제작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진숙 주무관은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 철학으로 하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한국의 원형, 세계와 通하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에는 '더해야 할 필요도, 덜어내야 할 필요도 없는' 디자인의 이상(理想)이 담겨 있다. 그 이상에 다가서는 여정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옷' '맛' '집' '글' '소리' 등 5개 주제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살림', 약자를 배려하는 '살핌' 등 2개 프로젝트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외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8일 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한국인의 삶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세계의 디자인에 담아내고 있다.

'더 할 나위 없는.' 9월 1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개막한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는 '옷' '맛' '집' '글' '소리' 등 5개 주제전의 경우 입고, 먹고, 쉬고, 배우고, 즐기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총체적 문화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살림'과 '살핌'의 2개 프로젝트전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차별이 아닌 차이를 수용하는 디자인을 제시한다.

11월 4일까지 계속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48개국 5백19명의 디자이너(국내 1백59명, 해외 3백60명)와 3백76개 기업이 참여해 1천9백51개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다. 올해 비엔날레의 특색은 전시의 출발점을 '우리 것'에 두었으며, 전시 대상 콘텐츠를 대량생산 소비재에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디자인전의 획일성에서 탈피하려고 시도한 점이다. 또한 음식과 소리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조명한 색다른 전시도 포함돼 있다.

은병수 총감독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원형과 현대 디자인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세계 문화와 산업, 그리고 예술과 디자인계에 새로운 실

마리를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두 차례의 행사가 디자인비엔날레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면 이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5개 주제전에서는 한국 문화원형을 어떻게 세계에서 통하는 디자인으로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엿보인다. 우리 의생활문화 속에 나타난 디자인적 가치를 조명한 '옷' 전시에는 다양한 한복 차림의 인형 1천개가 바닥에 놓여 있다. 저고리의 무한 변신을 보여주는 설치작업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전문학교에 한국의 조각보와 문 창살 등을 모티프로 제시한 뒤 그들의 시각과 기법으로 재창조해낸 작품을 선보인 코너도 눈길을 끈다.

'글' 주제전은 '한글 디자이너 이도'를 집중 조명한다. 이도는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글자 중 하나로 꼽히는 한글을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이름. '쓰기 쉽고,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글 창제원리야말로 현대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일치한다는 점을 깨우쳐준다.

'맛'에서는 밥, 떡, 식기 등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식생활문화를, '소리'에서는 우리의 전통악기와 다양한 음향기기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리 것'에 충실한 기획… 음식 · 소리 주제 색다른 전시도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전은 '집'. 담양 소쇄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국내외 디자이너와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창의적 발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40여 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장)는 소쇄원을 대나무와 콘크리트를 활용한 휴식공간으로 표현했다. 관람객과 소통하는 작품도 많다. 사람들은 한국 전통가옥에서 한 칸으로 일컫는 크기(2×2×2미터) 안에 압축해놓은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명상하거나 쉴 수도 있는 작품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환경과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살림'과 '살핌' 프로젝트는 '느낄 거리'와 '생각할 거리'에 방점을 둔 행사다. '살림'에서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버리는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뜨개질로 만든 수세미를 설치작업으로 전시해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물자절약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민한 '살핌'에서는 '배려의 디자인'과 만나게 된다.

동아DB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8개국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글로벌 디자인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상업적 성격과 분리되기 힘든 디자인 분야는 오랜 시간 서구의 것을 답습하고 받아들여왔지만 이번 비엔날레는 우리의 문화원형과 생활 속 디자인에 주목해 차별화된 전시를 펼쳐낸다. 그런 만큼 비엔날레는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지만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것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자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THE CLUE

'맛' 주제전 큐레이터 오정미

"한식 세계화, 그릇까지 대접할 수 있어야"

동아DB

"접시에 놓인 음식이 바로 조각 그 자체 아닌가요? 실제로 음식에는 디자인 개념이 담겨 있어요. 맛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성도 필요하거든요."

음식을 디자인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맛' 주제전의 큐레이터 오정미(푸드아트 인스티튜트 대표) 씨는 앞으로 음식 자체가 비중 있는 디자인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닌 푸드 아티스트. 이러한 상반된 경험이 전시에 녹아 있다.

전시장 중앙에는 붉은 색 마른 고추를 수북하게 쌓은 '숭례문 광장'이라는 설치 작업이 놓여 있다. 태극, 팔괘를 그려 넣은 둥근 소반들이 벽에 걸려 있고, 모던하게 재해석한 의례상도 보인다. 그는 "의례음식과 오방색을 중심으로 전시를 풀어나갔다"고 소개했다. "하나의 접시 안에도 디자인이 있어야 해요. 아직 우리 음식에선 이런 면에 눈을 뜨지 못한 만큼 여기에 전시의 초점을 맞췄어요."

요즘 '한식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관련해 그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세계화도 할 수 있다"며 "한식을 알리고 싶은 외국인들의 취향,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체험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편리하고 간단한 것만 추구했던 생활방식에서 탈피해 음식뿐 아니라 그릇과 음식을 대접하는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그에게 한식 세계화에 적합한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빔밥이야말로 세계화에 걸맞은 웰빙 음식이죠. 네가 만들든, 내가 만들든, 적당히 만들든 맛있잖아요. 외국인들에게는 '내 식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고요." G

글 · 고미석(동아일보 편집국 전문기자)

서울 도심은 내사산(內四山), 즉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에 에워싸인 형국이다. 그중 가장 높은 것은 북한산의 남쪽 지맥에 솟은 북악산(3백42미터)이다. '백악산(白岳山)'으로도 불리는 북악산은 산세가 좌우 균형을 이루고 가운데 부분이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마치 갓 피어난 꽃봉오리를 닮았다. 최근까지 북악산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왔다. 조선시대에는 정궁(正宮)인 경복궁의 진산(鎭山)이었고, 현재는 청와대의 뒷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악산 능선과 산등성이에는 총 19킬로미터의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길)가 개설돼 있다. 서울성곽(사적 제10호)의 사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자하문)과 정릉 아리랑고개 사이의 가파른 산허리와 산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관광도로다. 1968년 9월 개통된 이 도로는 주변 풍광과 전망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서울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인기가 높다.

특히 북악스카이웨이의 최고점에 조성된 팔각정공원에서 바라보는 서울 도심의 야경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다. 또한 북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비봉에서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북한산의 바위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북악스카이웨이의 찻길 옆으로는 걷기 좋은 산책로가 개설돼 있다. 개통된 뒤로 37년 동안이나 자동차를 타고서만 지날 수 있었던 길이 마침내 누구나 느긋하게 걸어볼 수 있는 길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산책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통행이 제한된다.

북악산길 산책로는 성북구 구간 3.2킬로미터, 종로구 구간 3.8킬로미터를 합해서 총 7킬로미터에 이른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도가 거의 비슷해서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지만, 성북구 쪽에서 출발해 종로구의 창의문 방면으로 내려서는 것이 무난하다.

성북구 쪽의 시작점인 성북구민회관과 지하철 4호선의 삼선교역 사이에는 마을버스(1번)가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종로구 쪽의 산책로 시작점과 창의문 사이의 능금나무길 주변에는 서양화가 김환기(1913~1974)를 기념하는 환기

팔각정공원에서 바라본 해넘이. 띠처럼 가로지른 한강의 물길도 보인다.

미술관(02-391-7701),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산모퉁이카페(02-391-4737), 도심 속의 심산유곡인 백사실계곡 등이 있어서 산책 후의 피로감을 씻어내기에 좋다.

북악산길 산책로는 경사가 매우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다. 게다가 숲이 울창해서 녹음 우거진 여름철에는 시원한 숲 터널을 지나게 된다. 애초 길의 폭이 좁거나 경사진 곳에는 나무데크가 설치돼 있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또한 길의 중간에는 정자, 벤치 등의 편의시설과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어 휴식하기에도 좋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아파트숲도 이 길에서는 삭막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경사 완만하고 편의시설 많아 산책로 매력 만점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 산책로를 걷는다는 염정희(59) 씨는 "바로 옆에 찻길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는 좀 어수선하긴 해요. 하지만 공기도 맑고 무릎관절에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어서 한번 걷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아주 좋아져요"라며 북악산길 산책로의 매력을 강조했다.

북악산길 산책로 주변의 명소로 길상사(02-3672-5945)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의 길상사는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의 말사지만, 원래는 1960~80년대까지 삼청각, 청운각과 함께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로 꼽히던 대원각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으로 간 시인 고(故) 백석(1912~1995)을 사랑한 고(故) 김영한 여사가 1997년 자신이 소유한 대원각을 법정스님께 시주해 길상사로 탈바꿈시켰다. 법정스님으로부터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은 김 여사는 길상사가 문을 연 지 2년 뒤인 1999년 세상을 떴다. 그런 내력을 간직한 길상사는 절이라기보다는 규모 큰 살림집이나 별장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도 절 특유의 경건함과 고즈넉함이 살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준다.

북악산길 산책로의 종로구 쪽 출발지이자 종점인 창의문 아래 길가에는 늠름한 자태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1·21사태' 당시 순직한 고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다. 1968년 1월 21일 발발한 1·21사태는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다.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은 국군 복장에다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청와대 부근까지 침투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이던 최규식 경무관은 청와대로 진입하던 무장공비들을 가로막고 검문을 벌이다 총에 맞아 숨졌다. 이처럼 북악산길과 그 주변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사연들이 발길 닿는 곳곳마다 스며 있다. 그래서인지 그 길의 여운은 실제 거리보다도 훨씬 더 길게 남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깊은 산중의 오솔길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악산길 산책로.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벤치와 각종 운동기구들.

북악산길 산책로는 숲이 울창해서 녹음 우거진 여름철에는 시원한 숲 터널을 지나게 된다. 애초 길의 폭이 좁거나 경사진 곳에는 나무데크가 설치돼 있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또한 길의 중간에는 정자, 벤치 등의 편의시설과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어 휴식하기에도 좋다.

PD수첩 '광우병' 편 이야기 다룬 책 펴낸 영어번역자 정지민

"이제야 왜곡된 진실을 말한다"

지난해 봄, 대한민국은 '광우병' 논란으로 시끌벅적했다. 당시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MBC 'PD수첩'의 '광우병' 편 제작에 영어 번역과 감수자로 참여했던 정지민 씨가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해 방송했다"며 그 내막을 밝히는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편에서 영어 공동 번역자이자 감수자로 참여한 뒤 제작진의 왜곡 번역 문제를 제기했던 정지민(27) 씨가 그간의 일을 재정리한 〈주-나는 사실을 존중한다〉를 10월 초 출간한다. 유학을 준비하던 그가 유학까지 미룬 채 책을 쓰게 된 이유엔 'PD수첩과 광우병' 사건이 한가운데 있다.

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으로 죽은 여자'에 관한 사건을 다룰 것이라며 정 씨에게 번역을 부탁했다. 흥미를 느낀 그는 광우병과 관련한 자료들을 번역하고 감수까지 했다.

이후 4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됐지만 정 씨는 개인적인 일로 바빠 방송을 챙겨 보지 못했다. 그러다 두 달쯤 지난 6월 25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번역하고 감수했던 방송분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사흘 뒤 방송을 본 그는 자신이 감수했던 번역 내용을 자막을 통해 변질시키고, 사실관계를 무시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만든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 미루고 집필 "틀린 것 바로잡아야"

정 씨는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다우너 소 동영상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작진이 원본에서 제대로 번역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을 방송 몇 시간 전에 인간광우병(vCJD)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죄다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소를 보여주며 이를 광우병 의심 소라고 연결시킨 것도 왜곡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PD수첩'의 왜곡 방송을 비판했고 이 사건의 본질을 기록해두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T. E. 로런스의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모티프를 얻어 '주'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주'는 기둥(柱)뿐만 아니라 주석(註), 주인(主)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녀 이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분명히 해주는 낱말이에요. 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을 토대로 썼지만 자존, 지피 등 평소 제가 삶의 지침이라고 여기는 7가지를 주제로 글을 구성했어요."

정 씨는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다 썼다"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정확한 논지 파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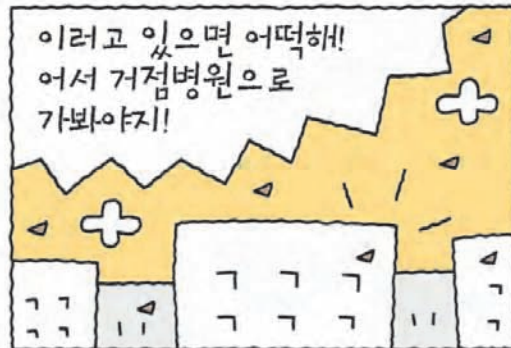
"'집단'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꼭 정의는 아닌 거죠.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거고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는 정 씨는 내년 가을 서양사와 서양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정지민 씨는 10월 초 출간하는 책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의 의도적 왜곡, 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가을, 훌쩍 떠나고 싶은…

글과 그림 · 최영순

고독은 잠시 방문하기엔 좋은 장소이나 오래 머물러 있기엔 무척 쓸쓸한 곳이다.
– 버나드 쇼(영국 극작가)

뮤지컬 '언약의 여정' 세계무대 '언약'

대형 창작 뮤지컬 '언약의 여정'이 관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앙코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공연 당시 평균 좌석 점유율 90퍼센트 이상을 기록한 '언약의 여정'은 오케스트라 라이브 반주와 60여 명에 달하는 배우와 스태프, 2백여 벌의 의상 등 창작 뮤지컬에서는 보기 드문 웅장함과 화려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은 꿈을 잃고 방황하는 10대 소녀 케린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을 열고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시대를 넘나드는 다이내믹한 구성으로 풀어냈다. 모든 뮤직 넘버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영어로 만들어졌다. 이 작업은 미 UCLA를 졸업한 교포 2세 작사가 데보라 킴이 맡았다.

창작 뮤지컬 '언약의 여정'

일시	10월 5일(월)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수·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9만9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문의	02-2652-0706 www.sac.or.kr

제작진은 실감 나는 무대를 재현하기 위해 한국 배우들뿐 아니라 미국 현지 오디션을 통해 뮤지컬을 전공하는 동포들도 캐스팅했다. 독일의 '스크림 팩토리(Institute of Performing Arts Scream Factory)' 대표인 조지 리스트는 이렇게 발탁된 배우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아카데미를 주관해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동참했다.

감동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미 해외 유명 뮤지컬 스태프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언약의 여정'은 올해 8월 홍콩 공연을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또 내년 미국 공연 준비도 이미 시작했으며 2011년 유럽 공연을 추진하는 등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최장열 감독은 "뮤지컬 '언약의 여정'은 우리 창작 뮤지컬이 세계 수준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은 방황하는 청소년 케린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는 법,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뮤지컬에는 문혜영, 김현지, 윤선용, 김효영, 구충길 등이 출연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러시아 국립크렘린발레단의 '에스메랄다'

일시	10월 8일(목)~10일(토)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20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빅토르 위고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의 에피소드를 발레로 엮은 공연. 쥘 페로가 안무를, 체자레 푸니가 작곡을 맡은 고전 발레의 걸작 레퍼토리 중 하나다. 총 3막 4장으로 이뤄진 멜로드라마 같은 서사 구조가 무언의 동작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각기 다른 계층의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 공연에서는 특히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듀엣, 솔로, 앙상블 댄스가 돋보인다.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

일시	10월 11일(일)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토·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10월 2, 3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문의	02-1644-2003 www.mct.or.kr

노벨상 수상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작품을 한국 대표 연출가 임영웅이 사실주의 연극으로 꾸며 다시 무대에 올렸다. 1962년 이해랑 연출로 드라마센터에서 국내 초연된 이 작품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연극에 매료되는 계기가 됐다. 이해랑 서거 20주기를 추모하는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 메리 역은 배우 손숙이 맡았다. 이 밖에도 김명수, 최광일, 김석훈 등이 메리의 가족으로 분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엮어간다.

물을 지배해야 21세기를 지배한다

물의 미래

에릭 오르세나 지음 / 양영란 옮김 / 김영사 · 16,500원

"화석에너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물 관리는 의장과 각국 정상,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생기는 재해도 대부분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 관련 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제64차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한 내용 중 물 관리에 대해 강조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연설을 했으며, 물 관리와 관련해 위의 내용과 함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성과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언급했다.

이 연설문 작성에 참고했다는 책 <물의 미래>가 화제다. '인류 문명과 역사를 뒤바꿀 최후의 자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프랑스의 최고 지성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의 생생한 물 탐사기록이다. 런던정경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1988년 공쿠르상 수상 소설 <식민지 전시회> 등을 펴낸 저자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보좌관 겸 연설문 초안 대필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국제해양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1998년부터 프랑스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환갑을 앞두고 2년 동안 물 위기가 닥친 현장을 찾아 5대양 6대주를 누볐다.

> '굶어죽을 것인가?
> 목말라 죽을 것인가?'
>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물이 없어
>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
> 저자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 전세계 현장 탐사를 통해 입증한다.

왜 참치 초밥이 아프리카 물 부족을 초래하는가?

오르세나의 화법은 직설적이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식의 건조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일상에서 물 부족과 오염으로 고통 받는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중 한 가지 예가 '왜 참치 초밥이 아프리카 물 부족을 초래하는가?'처럼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다.

답은 이렇다. 아프리카 모리타니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는 영세한 어부들은 일본의 초현대식 저인망 어선과 경쟁하다 밀려나 직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결국 아프리카의 식탁에서 생선이 자취를 감춘다.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염소나 소 같은 가축을 더 많이 기르게 된다. 이 가축들은 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점점 고갈된다는 게 저자의 현장 기록이다. 사례 스케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물과 세계화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왜 하필 물일까? 환갑을 넘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그럴 만한 나이가 되면, 당신은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을지 모른다…(그래서 나는 아주 먼 곳까지 오랜 기간 돌아다니면서) 사람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연구에 열중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작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패스트푸드가 나쁜 게 아니라 공산품처럼 생산되는 음식이 문제다.
과도한 소비자의 권리가 좋은 음식문화를 망치기도 한다.
먹을거리의 관점에서도 세계는 '평평'해졌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최고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컬러는 녹색이다. '녹색 성장'으로 상징되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 실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슬로푸드, 슬로시티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슬로푸드(Slow Food)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소도시 브라(Bra)에서 맥도날드로 상징되는 패스트푸드 문화에 분노한 일군의 요리사들이 모여 '슬로푸드 운동'을 선언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좋은 음식문화를 망쳐놓았고, 슬로푸드가 대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설득력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패스트푸드가 음식문화를 망쳐놓은 게 아니다. 오히려 대량 생산이 문제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건강식의 상징으로 여기는 스시도 에도 시대의 패스트푸드였다. 당시 스시는 간사이(關西) 지방의 '하코 스시'였다. 하코(箱子) 스시는 지금의 '니기리 스시'처럼 간단하게 식초로 간을 한 밥을 쥐고, 그 위에 신선한 생선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며칠씩 걸리던 음식이다. 그후 복잡한 하코 스시 대신 패스트푸드 스시가 등장해 스시의 대표 주자가 됐다. 지금 세계인들은 에도 시대의 패스트푸드를 최고의 건강식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동아DB

소금은 작고 느린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크기'다. 작은 음식은 좋고, 큰 음식은 나쁘다. 우리는 패스트푸드가 가져온 해악에 신경 쓰느라 작은 음식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 오늘날 문명화된 세계인의 먹을거리는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된다. 생명이 살아 있던 음식이 공산품처럼 바뀌고 있고, 다른 생필품처럼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모든 생산과정을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사료를 배급해서 키운 돼지고기로 만든 햄은 큰 음식이다.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거대한 닭장에서 나온 달걀도 큰 음식이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유명 대기업의 두부는 큰 음식이다. 그것에 비록 '유기농'과 '우리 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말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큰 음식 대신 손으로 만든 작은 음식 찾자

과거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먹이 사슬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생산자였다. 농부와 어부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그들이 내놓는 대로 먹었다. 생산자가 먹을거리의 종류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먹을거리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놓아야 한다.

이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철과 원산지는 중요치 않다. 먹을거리가 나오는 때와 장소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통조림이 아니라도, 한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아침에 남태평양에서 잡힌 참치가 저녁때 도쿄 긴자의 스시 다이에 오르고, 북대서양의 연어가 서울의 밥상에 오른다. 먹을거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세계는 '평평'해졌다.

세계가 평평해지는 동안 모든 권리의 중심은 소비자였다. 소비자가 옳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관점이 지배했다. 이는 대체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 소비자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과도해진 소비자의 권리가 좋은 음식문화를 망쳐놓고 있다.

먹을거리에 있어서만큼은, 느림보다는 작은 게 더 중요하다. 작으면서 동시에 느린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작은 음식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하고 구하기 힘들다. 큰 음식은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싸고 풍부하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작은 음식을 되찾는 길은 손[手]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손의 가치를.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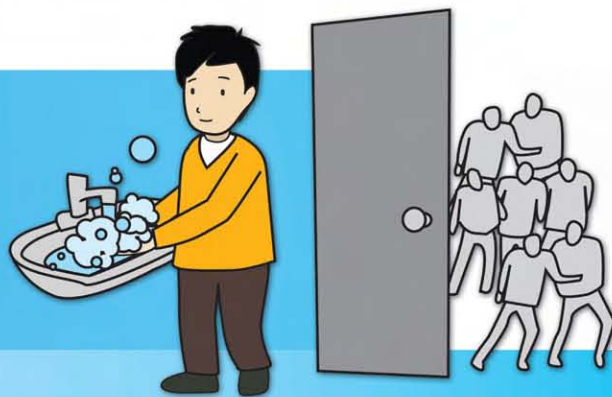
글 · 손일영(칼럼니스트)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봉달이' 이봉주의 마지막 마라톤이 시작된다. 화려한 국제무대가 아니다.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
고향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식 마라톤 경기가 될 레이스를 펼친다.
평발이란 장애를 딛고, 불혹의 나이까지 오직 마라톤 한길만 걸어온 그의 레이스는 보는 이에게 감동과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화려한 기록, 많은 이들의 찬사를 뒤로 하고 공식 무대를 떠나는 그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에게나 친근한 '봉달이' 이봉주로 기억될 것이다.